

E02-2009-01/2009.04

제11권 제1호/Vol. 11 No. 1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연구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한보영 boyoung@krei.re.kr	02-3299-4374

목 차

□ 포커스

농업분야 남북한 경험 실태와 과제 / 3

□ 동향분석

- | | |
|--------------|------------------|
| 1. 농업정책 / 28 | 6. 농업기반 / 44 |
| 2. 벼농사 / 31 | 7. 산 림 / 50 |
| 3. 밭농사 / 37 | 8. 기타 작물 / 57 |
| 4. 감자농사 / 39 | 9. 기타 보도 동향 / 58 |
| 5. 축 산 / 41 |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67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67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78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79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96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96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00
- 북중 교역 동향 / 119
 - 1.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 119
 - 2.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 122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27

포 커 스

● 농업분야 남북한 경험 실태와 과제

농업분야 남북한 경험 실태와 과제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kwontj@krei.re.kr)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이 서로 합의한 것을 지키고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 제도적으로는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 4개 합의를 구체화하는 등 실행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외국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대외경제 법제를 남한에 대해서도 동등하거나 그 보다 더욱 호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미비점 이외에도 농업분야의 남북경협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있다. 경험사업자가 당면하는 현실적인 제약은 주로 북측의 문제에 기인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북한의 경제 환경이 남북경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경험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한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당국 사이에 합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은 합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부터 실행에 옮기되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의 기초를 긴 안목에서 설정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타 분야의 사업과는 달리 농업분야는 자연의 제약을 더 많이 받고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험은 대부분 북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농산물은 계절적으로 생산되며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품질이 쉽게 손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 때 현장을 방문해야 하고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물류 및 유통체계가 마련되어야만 경험이 성공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남북한 당국자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경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중요하다.

1. 서 론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은 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금까지 추진된 경협은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하면 민간 차원의 소규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2007년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10.4 정상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정부 및 민간차원의 경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됨으로써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도 미진한 실정이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경협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농업분야에서도 여러 건의 경협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활성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협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면 농업은 향후 남북한 경협의 중요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남북한 당국자는 여러 가지의 농업분야 경협을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 경협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에는 경협기반의 불안정, 각종 제도의 미비, 경협사업자의 인식 및 경험 부족, 국내외 환경 등 여러 요소가 있으므로 이들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협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경협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경협 가운데서도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경협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경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농업분야 경협 추진 동향

가. 경협 추진 실태

경제교류협력은 크게 교역과 경협으로 나눌 수 있다. 교역은 물자의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이동을 의미하지만 경협은 경제적 이익

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인적교류, 기술교류 등 제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위탁가공 또는 계약재배는 일반적으로 교역에 포함시키지만 남북한 사이에는 투자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경협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경협의 범주를 계약재배 및 투자사업(합영, 합작, 단독투자, 연구개발), 인적 또는 기술교류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한다. 남북한의 관련 제도를 검토할 때는 교역과 경협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다룬다.¹⁾

2009년 3월말 현재까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건수는 386건이지만 이중 17건은 협력사업자 승인이 취소되었다. 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 중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건수는 358건이며 이 중 12건은 승인이 취소되었다. 현재 승인된 협력사업 중 개성공단 협력사업은 292건이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승인 건수 88건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모든 협력사업자가 협력사업을 승인을 받았으나 이 중 승인 취소 5건, 사업 중단 6건, 승계 1건, 승계통합 5건 등의 변동 사항을 고려하면 현재 유효한 협력사업은 277건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협력사업자 중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건수는 61건이지만 이중 7건은 협력사업 승인 취소가 되었으므로 현재 유효한 협력사업은 총 54건이다.²⁾

지금까지 농수산업 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건수는 23건이며 이 중 국제옥수수 재단,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태영수산-LG상사, 상하씨엠 등 4개 사업자는 2008년 4월 21일부로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이 모두 취소되어 현재 19건만 유효하다.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농수산업 분야에서 현재 유효한 경협사업은 14건이다(표 1).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10건 이하로 파악된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입법 예고(2008. 5. 8)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고만으로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2008. 7. 31). 농수산업분야의 협력사업 중 2000년도 이후 추진된 경협사업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실패하였다. 최근 버섯 재배 및 가공, 김치 가공 등 유통 분야의 경협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에서 수산 양식 등 수산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통일부는 경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http://www.tongtong.go.kr>). 남북경제협력사업(경협)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단순 인적교류, 교역은 제외)

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13호, 2009. 3.

표 1. 농수산 분야 경험사업 추진 현황

협력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역	승인
미홍식품(합영) ▲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 가공, 양식,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97.5
파라우수산(합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 가공	원산, 해주	97.8
금오식품(합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 고구마 전분 제조	평양	97.8
태영수산/LG상사(합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 생산	나진, 원산	97.10
안흥개발(합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남포	98.3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합작)	라선경제협조회사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	나진, 선봉	98.4
국제옥수수재단 (조사, 연구)	농업과학원	옥수수 품종개발 공동연구	평양, 기타	98.6
백산실업(합영) ▲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 배지 생산, 버섯류 생산, 수출	나진, 선봉	98.10
(주)해주(합작)	광명성총회사	수산물 생산, 판매	서해인근	99.1
(주)G-한신(합작) ▲	민경련총회사	감자라면 생산	평양	08.11
(주)G-한신 ▲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김치, 된장, 상항버섯음료)	평양	03.10
제일유통(계약) ▲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04.8
상하씨업(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물 가공	남포	04.9
(주)제이유네트워크 ▲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 판매	평양	04.12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 판매	평양	04.12
아이니무역 ▲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 판매	원산	05.6
제일유통 ▲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봉산, 연덕	05.12
제일유통 ▲	개선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05.12
제일유통 ▲	개선총회사	소사육 및 판매	황북, 황남, 평양	05.12
(주)두담(합영) ▲	아리랑총회사	식자재 제공사업	개성	07.7
(주)통일고려인삼(합영) ▲	광명성총회사	인삼재배 및 가공공장 운영	평양, 봉산	07.12
독여로 ▲	광명성총회사	식품제조업	평양	08.2
대동수산 ▲	광명성총회사	수산물가공업	남포	08.6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2008. 8.

주: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

음영 처리된 4건의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은 2008년 4월 21일부 승인취소.

나. 한국의 경험 관련 법, 제도 현황

한반도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한 사이의 공식적인 물자교류는 1988년 7월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특별선언)과 그 후속 조치로 10월 발표된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재개되었다. 남북한 사이의 공식적인 물자교류가 재개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여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다.

남북한 사이에 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은 1992년 2월에 발표된 「남북한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조치로 1992년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직교역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결제수단으로 청산결제계정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 부속합의서에는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3년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함으로써 북핵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되었으나 1994년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남북한 사이의 교역, 위탁가공, 투자 등이 증가하였다.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4월 30일 대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주민 접촉 및 북한방문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교역,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대북 투자의 내용이 농업, 수산업 등으로 다양화되어 태영수산/LG상사의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 가리비 양식 투자,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도 성사되었다. 2000년 6월 개최된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진전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과 함께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설치, 투자보장 등 4개 분야 합의를 채택하였다.

1992년 2월에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선언한 기본 규범이며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부속합의서」는 기본원칙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부속합의서」에는 13개 항목에 걸쳐 남북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실시원칙과 협력분야 등을 정하고 있다. 13개 항목 가운데는 남북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실시원칙과 협력분야, 상대측 인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 보장,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 교류물자의 가격, 대금결제방식, 투자보장, 이중과세의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과 같은 일반적인 국제통상조약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한 당국은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장치로서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으며 이후 국회의 비준을 거쳐 2003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동 합의서를 공식 교환함에 따라 효력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투자보장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이하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상사분쟁해결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이하 ‘청산결제합의서’) 등 4개의 합의서가 있다. 이러한 합의서가 채택되기 전까지만 해

도 남북한은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각 합의서의 전문에는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투자보장합의서는 남과 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 및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한 수용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남과 북의 일방과 그 상대방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안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은 기업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방의 기업이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통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는 그 일방이 과세하되,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은 세액의 50%를 감면하여 그 상대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이 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에서 과세할 수 있되, 동 소득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그 소득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방의 거주자와 기업은 동일한 여건 하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와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청산결제합의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 거래의 대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남과 북은 각각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 달러화로 하도록 한다. 단, 남북합의하에 다른 화폐로 할 수 있다. 청산결제 이외의 대금결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청산결제은행 선정 문제를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의하였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동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상사분쟁사건과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상사분쟁사건을 관할토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인으로 구성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그 2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하도록 한다. 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을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위의 의뢰에 따라 의장중재인 선정한다.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이 또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경험 활성화 저해 원인 분석과 과제

가. 농업분야 경험 추진의 문제점

남북 경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 사이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험의 시작단계에서 거래를 완료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경험을 추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접촉하고 서로의 의사를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신뢰할만한 통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한 기업인이 북한과 경험을 추진코자 할 때 어떤 통로를 통해 어떤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접촉점이 확립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할 때 북측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아 매번 간접 경로를 통해 시도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일단 대화의 통로를 확보하더라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 및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통일부의 승인 과정에서 북측과 빈번히 접촉하여 협의해야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않으며 협상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북한 상대방으로부터 현물 투자나 선금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다. 협상에 참여하는 북한 상대방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인 경우가 많아 기술적인 문제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 곤란하다. 협상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위하여 북한을 방문할 경우 남북한 관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농업 분야의 사업은 필요한 시기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칠 경우 그 해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류의 문제 또한 적지 않다.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북한 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워 중국 등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나 통관과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운송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북한 내의 하역시설과 도

로, 운송 차량 등 운송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획된 날짜에 물자를 운송하기 어렵다. 남북한 사이의 물류비용은 제3국 수송로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원가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경협을 추진하더라도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명확치 않으며 생산물의 품질이나 납품 일자가 보장되지 않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가격은 남북한 경협 상대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경협사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시세와 품질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야 하지만 북한은 가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격을 결정할 때는 원료나 제품의 국제가격 변동을 반영해야 하지만 한번 결정된 가격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경협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

대금은 계약 당사자와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결제하도록 요청 받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요 받고 있으며 대금을 수령하는 자의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남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금융결제 수단이 없어 중국 등 제3국의 계좌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금 결제 과정이 번거롭고 수수료가 매우 비싸며 금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 외적인 문제로써 북측 사업상대자가 사업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 외적인 부담으로서는 웃돈 성격의 계약이해 보증대금의 요구, 무리한 경제적 지원 요청, 사업과 관계없는 차량이나 컴퓨터 등의 전자 제품 요구 등이 있다.

나. 경협 기반 및 제도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들 법제는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원리와 커다란 괴리가 있기 외국과의 경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계가 있다. 북한의 헌법에는 외국인투자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며 외국인투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 다만 북한 헌법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외국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뿐 여전히 외국 투자기업의 국유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를 불안하게 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은 남한동포 또는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남북한 사이의 경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헌법에서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거나 최소한 법률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국의 무역 및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 이는 북한의 입법 행태가 체계적이지 못함에 원인이 있으나 대외경제관련 법제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은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제정된 법률을 대외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실제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선전이나 홍보를 위한 추상적 선언에 그친 조항이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외경제중재법」은 중재비용, 중재 제기에 필요한 문건, 심리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규정이 모호할 경우 실제 외국인이나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과의 무역이나 투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경제법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하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외국인 또는 투자기업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에 합치할 정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북한은 상사분쟁과 관련하여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국제조약 및 관례를 존중한다고 천명하면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분쟁중재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가입하지 않아 신뢰를 얻기 어렵다. 북한은 상사분쟁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규범으로서는 「유엔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및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어디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아 법 집행상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외국인 또는 외국 투자기업에게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중재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등 좀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개방의 폭이 좁으며 대내적인 부문을 강조함으로써 법률의 대외지향성이 약하다. 향후 북한은 국가간의 최혜국대우와 무역제재 등에 관한 대외적 사항을 대외경제법제에 명문화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대외경제법제는 법령의 실제 적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등 정보가 부족하다. 특히 「대외경제중재법」을 통한 피해구제 및 대외분쟁 해결사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어 대외경제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대외경제법제를 통한 실질적인 분쟁해결과 불복절차에 의한 권익보장의 실례가 소개되어야만 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중 어느 법률에서도 남한기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남북한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가공무역법」에서는 남한기업에 대한 언급이 없고 위탁가공무역의 주문자 범위에 남한기업

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북한이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외국인 투자 관련법과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 등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외국과의 투자 및 거래 관계에 적용될 뿐 남한 또는 남한 동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는 외국투자자를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공화국령역안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 내지 남한기업은 북한의 법규 규정상 외국 내지 외국기업이 아니므로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적용하기 어렵다.

북한은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국기업과의 거래 범주를 외국인, 해외동포, 남한동포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교역을 할 경우에는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이미 합의한 「남북경협 4개 합의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보장합의서의 송금에 관해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사이에는 20배 이상의 격차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중 기업소득세에 관한 세제의 문제점으로서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공제 불인정, 복지후생기금 등의 출연에 대한 손금처리 불인정, 기업해산시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중과세, 북한 원화 환율 적용시 청산소득 발생문제, 기업해산시 과중한 납세담보금 설정, 과도한 납세 연체료 등을 들 수 있다.³⁾ 남북한 사이의 경제체제와 세제가 달라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는 4개 합의서 중 경협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합의서 내용대로 남북한이 상사분쟁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의장중재인 및 중재 장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 방법에 따라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힘들고 법 집행상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3) 김동균, “남북경협의 법적·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재 관련 국제조약인 「유엔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및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가입하는 등 좀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칭)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운용하여 실질적인 사상분쟁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청산결제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청산결제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외화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환결제를 요구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만 청산결제를 이용함으로써 청산결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환결제 방식이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분간 청산결제와 환결제를 병행하면서 점차 환결제 방식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프랑크푸르트협정(1949.10.8~1951.3.31), 베를린협정(1951.9.20~), 신베를린협정(1960.8.16~1989)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합의를 통해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합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으므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활용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 남북경협의 저해 요인 분석

남북한 사이의 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둘러싼 외부의 요인도 존재한다. 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정책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 요인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개의 요인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표 2).

표 2. 남북경협 저해요인

구 분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남 한	○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 경협 규제 및 절차의 복잡성	○ 경제적 유인 부족 ○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 경협관련 제도의 미비
북 한	○ 개혁·개방정책의 미흡 ○ 정책의 일관성 부족 ○ 남한을 특수 관계로 인식	○ 경제침체와 경제기반의 미비 ○ 투자환경의 열악 ○ 경협관련 규범과 의식 부족
외부환경	○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 ○ 느슨한 대북 외교 관계	○ 원산지 규정의 모호성 ○ 대북 경제 제재

(1) 남측 요인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은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부족할 경우 경험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보험제도가 미비하며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제도도 기업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 정책의 기조가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경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기조가 경험 자체를 제한하는 듯한 인식을 주고 있다. 남한 기업인이 북한과 경험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규제가 많아 사업승인을 받기도 힘들며 사업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된다.

정책적 요인 못지않게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 기업인이 경험을 추진할 때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북한과의 경험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어렵다. 북한 내 판로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남한으로 반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으로의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수출을 할 때도 납기를 정확하게 지키기 어려워 계약이 파기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잦은 정책 변화 때문에 경험 환경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지만 이러한 남북한만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기 어렵다. 남북한 사이의 경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일방의 이익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불확실한 경험 환경 때문에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낮아진다.

(2) 북측 요인

먼저 정책적 요인으로써 북한은 남한에 대한 경험 창구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으로 단일화하고 남한 기업의 상담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기존의 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방북을 허용하지 않으며 인적 접촉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북한은 대남 경험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없다. 북한은 남한을 특수 관계로 인식하여 외국인의 투자 관련 법률인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남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외국과 차별화 정책을 적용한다.

남북경협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은 남북한 사이의 경제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과의 연계가 되

지 않고 금융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도 미비하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전기, 통신, 운송 등 하부구조가 매우 열악하여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진출 기업이 하부시설에 직접 투자함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공식적인 대남 경협 창구인 민경련을 통해서만 남측 기업인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협을 희망하는 남한 기업인의 경우 사업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측면 보다는 경제외적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감안할 수밖에 없다.

(3) 외부 요인

현 시점에서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어 남북한 사이의 불확실성과 긴장이 완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경협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사회와 북한의 외교적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점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남북한 사이의 경협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외부의 경제적 요인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남북한은 남북한 사이의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는 않는 경향이어서 남북경협에 의해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를 남한으로 표기하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표기할 경우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특혜를 받기 어려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한 사이의 경협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협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경협 저해요인이 제거된 다음에는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을 구축해야한다.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에는 정책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남북한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표 3). 외부환경의 개선은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은 국제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정책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협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개혁·개방의

확대가 가능하다.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합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합의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나 부분적인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3.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

구 분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남 한	○ 대북정책 기조의 일관성 유지 ○ 정경 분리 정책의 유지 ○ 경협 규제 및 절차의 완화	○ 경제논리에 입각한 투자 결정 ○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 ○ 경협관련 제도의 보완
북 한	○ 개혁·개방정책의 심화 ○ 경협정책의 일관성 유지 ○ 국제규범과 일치된 제도 구축	○ 경제회복 및 산업인프라 구축 ○ 투자환경의 개선 ○ 경협관련 규범과 의식 전환
외부환경	○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 대북 외교 관계의 복원	○ 남북한간 명확한 원산지 규정 ○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경협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다. 경협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이므로 아무리 합의 내용이 좋더라도 경협 주체가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합의된 내용은 남북한이 그대로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대표적인 경협 활성화 조치인 「남북경협 4개 합의서」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05년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에 상응하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였으나 남북한 사이의 경협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경협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게 되며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서 밝힌 바 있듯이 북핵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농업분야 경협 추진 대책

가.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농업분야 협력 합의 내용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농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최초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8월 개최된 남북농업협력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남북한 당국자는 시범농

장 구성과 운영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한 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하였으며 그 후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표 4).

표 4. 남북 당국간 농업분야 관련 회의

구 분	내 용	비 고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 시범농장 조성 및 운영 ○ 종자정선시설 지원 ○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 축산, 과수 등 분야 협력 ○ 산림녹화 협력	2005. 8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제1차 회의	○ 축산(양돈)사업 추진 합의	2007. 11
남북총리회담	○ 합의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 ○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을 2007년 중 착수 ○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 협력사업 추진	2007. 11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내용 추진 ○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는 2007년 중 착수 ○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창고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2007. 12. 21~25) ○ 북측 수요가 있는 농업분야 시범사업 우선 추진 ○ 양묘장 조성 및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 2008년 중 착수 ○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	2007. 12
제1차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	○ 사리원 양묘장 조성 ○ 2008년 중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 추진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제2차 회의	○ 양돈사업 자재 및 장비 제공 구체적 합의	2007. 12
남북농수산물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2007년 중 착수,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 ○ 남북한 동식물 검역 및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기술과 정보 교환, 장비의 현대화, 수의약품 협력 ○ 과수, 채소, 잡곡,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2007. 12

자료: 통일부, 각종 합의서 및 해설자료

권태진 외, 「남북한 농수산물 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 실태와 활성화 대책」 C-2008-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정상회담 이후 남북총리회담에서 2005년 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우선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제1차 회의에서 농업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이 논의되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한 분과로써 농수산업협력분과가 설치되고 총리회담 합의사항 실천을 위하여 2007년 12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합의된 구체적인 협력사업 및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범농장 조성 및 운영은 당국자 사이에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사)통일농수산을 통해 동해안 금강산 지역과 서해안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당국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지만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에 농업과학자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종자 정선 및 가공시설 지원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 축산 협력사업 중 양돈 협력사업이 몇 차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양묘장 조성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당국자 차원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 민간의 협력사업에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전자원 교환, 수집·보존·이용에 관한 협력은 당국자 차원에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동안 민간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남북한 동식물 검역 및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정보교환, 장비 현대화, 수의약품 협력은 그 동안 당국자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과수, 채소, 잠업 등에 관한 협력은 그 동안 민간단체를 통해 과학자의 교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나. 당국간 합의된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대책

남북한 사이에 이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먼저 추진 할 것과 나중에 추진할 것을 정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사업 추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축산협력사업 중 양돈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전자원저장고는 사업의 내용이 매우 단순하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므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유전자원저장고는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자칫 귀중한 유전자원을 소실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대적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현재의 보관시설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향후 현대적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은 남북한 유전자원의 교환, 수집, 보존, 이용 등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범농장 조성 및 운영은 현재 통일농수산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당국자 차원에서 시범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북측이 꺼릴뿐만 아

나라 현재의 상황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차츰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정도가 적절하다.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에 대한 민간단체의 출입이 제한될 경우 이 사업을 당분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리하게 타 지역을 선택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농업과학분야 협력 사업은 단기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당국자 차원의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당국자는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농업과학분야 협력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자 정선 및 가공사업은 북측 입장에서는 비교적 우선순위가 높지만 남측 입장에서는 물자나 장비의 지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력의 성과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본격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양묘장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추진하고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동식물 검역 및 방역체계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술적 문제가 따르고 매우 복잡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 사업은 반드시 당국자 사이에 논의되어야 하므로 기업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협력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업은 남북협력에 앞서 먼저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며 적어도 장관급 회담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다음 실무협의를 추진되어야 한다. 동식물 검역 및 방역체계가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할 경우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수, 채소, 잠업 관련 협력은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협력이 바람직하므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중에서 잠업협력은 남북한 기업인 사이의 경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잠업협력은 개성공단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험에 앞서 일정 정도의 지원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채소 협력사업은 경험의 전 단계로써 계약재배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과수 협력사업은 당분간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 및 기술협력을 추진한 후 경험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농업분야 경험 활성화를 위한 전략

가. 경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남북한 사이에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전략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인 판단

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후 목적에 맞는 농업협력사업의 형태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설정할 수 있는 농업협력사업의 목표는 인도적 상황의 개선, 식량 증산, 농업기술 교류, 교육·훈련 기회 제공, 북측 협력 상대방의 경제적 자립, 농촌지역 생산 및 생활기반 복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사업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성과를 확인해가며 점차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이든 경협사업이든 투하되는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협력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농업협력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업발전의 토대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협력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 협력 당사자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남측 참여자에게는 북한 체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켜 남북 경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제도적 측면

농산물 생산의 특성상 남측 협력사업자의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해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사이의 농산물 검역 및 방역에 관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한 사이의 검역 및 방역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검역 및 방역 시설, 장비의 현대화, 필요한 물자의 공급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통관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 검역 및 방역을 위한 정보의 교류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및 위생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개시된 지 20년차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수축산물의 품질 및 위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협사업자 사이의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경협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아직까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한 번도 분쟁해결을 시도해본 적이 없으므로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농수축산물은 품질 표준

화가 매우 어렵고 체제가 다른 남북한 사이에 위생기준을 설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업 분야의 경협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산 농산물은 한 곳에서 대량생산이 어려운데다 생산 및 재배기술의 표준화가 미비하여 매번 동일한 품질의 생산물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남측 경협사업자의 주장이고 보면 빠른 시간내 품질 및 위생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경협을 활성화시키고 북측으로서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원산지 확인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북한산 물품의 반입은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되어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북측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남북한 사이에 원산지를 확인할 때는 해당 품목의 북한내 생산 실적, 수출입 실적, 재배 및 생산 방식,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경협 관련 4대 합의서를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한이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합의내용인 투자보장, 이종과세, 상사분재해결, 청산결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면서 경협에서 중요한 문제인 남북한 사이의 기업창설, 이윤분배, 기술자 및 근로자 채용, 기업의 경영과 조직, 기업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정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남한에 상응하는 기업조직과 운영 관련 법제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세부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폐쇄되고 있는 남북경협 연락사무소의 복원과 상설화가 필요하다. 남북한은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서로의 합의에 의해 2005년 10월 개성공단 지역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를 설치하였으나 2008년 3월 북측의 요청에 의해 남측 인원이 모두 철수함으로써 경협을 위한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접촉경로가 막혀 있다. 남북한 사이의 경협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상설사무소 개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 경협을 추진코자 할 경우 많은 경우 대북 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협의를 하는 실정이므로 가능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경협 관련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 연락사무소의 제도화와 상설화가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활용이 요구된다.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현재 공공

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차입이자 지출에 기금의 많은 부분이 잠식당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의 규모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식량 차관이나 비료의 무상지원에 편중 사용되고 있으나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협사업에 대한 유무상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기금을 남북경협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의 개발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협 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재정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하며 남북관계의 변동에 따라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북한 현지 공장 및 기업소에 대한 전문가 파견 기술지도 및 북한 근로자의 노무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요구된다. 신규 경협 추진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신규 경협 추진 기업은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협을 위한 협의 단계부터 컨설팅 지원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북한 내륙지역 투자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의 완화가 요구된다.

(2) 실천적 측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물류를 위한 육상운송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남북한 사이의 물자 수송은 현재 대부분 해상수송로를 이용하고 있다. 해상수송로를 이용할 경우 운임과 물류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남북경협 확대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피가 큰 상품의 위탁가공의 경우 물류비용이 생산원가의 40%, 판매가격의 10~15%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운임과 물류비를 낮출 수 있도록 육상운송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물류비 절감은 남북경협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이므로 당장 육상운송로 확보가 어렵다면 해상운송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의 농산물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다.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가치에 비해 무거우며, 쉽게 부패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농업분야의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과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북한의 물류시설과 장비는 낡고 낙후되어 있으므로 주요 출입지역 만이라도 물류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류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는 체선기간의 단축, 부대비용의 절감을 통해 물류비를 인하하고 물류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수산분야는 사업지역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못하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경협 추진이 요구된다.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기구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한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에 따라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하부에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등 9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경협사업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단순히 남북한 사이의 경협에 관한 협의기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는 기능도 중요하므로 관련 정부 부처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협 관련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 관련 정부부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려 나름대로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경협을 활성화 할 수 있다.

농업 개발지원과 경협의 연계를 통해 경협을 활성화 할 수 있다.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도 전후방 산업이 잘 연계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 북한과 같이 전후방 산업이 연계되지 않는 경우 기업인은 경협을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개발지원을 통해 전후방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면서 경협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농업은 경협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며 개별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정부는 농업 개발지원을 통해 경협을 위한 최소한도의 인프라와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과 경협을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배후지역과 연계한 경협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대북 농업개발지원은 금강산과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 배후 지역과 연계한 경협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경협을 정착시킬 수 있다. 경협 대상 사업도 이들 배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삼, 김치, 양잠, 양돈, 양계, 한약재, 버섯 등이 유망하다.

북한은 경제체제의 특성상 다 품목 소량 생산의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형태의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협사업자는 영세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이러한 경협환경을 고려하여 경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계약재배와 연계한 경협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북한산 농산물을 국내에 직접 반입하고자 할 때 1차 가공품 형태로 반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움. 따라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 농업을 대상으로 경협을 추진하려면 일차적으로 계약재배를 통해 안전한 원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사업이 가능하다.

동향 분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밭농사
4. 감자농사
5. 축산
6. 농업기반
7. 산림
8. 기타 작물
9. 기타 보도 동향

동향분석 요약

농업의 주요 정책방침인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해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고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과학연구부문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함.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올해 농사차비 준비와 씨뿌리기 사업에 한창임. 농사차비가 한 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기 위해 전 인민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지대별 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제철에 씨를 뿌리 위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음.

두벌농사 방침에 따라 각지에서는 봄밀, 보리씨 뿌리기를 실시하고 있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콩농사를 짓고 있으며 콩농사 면적을 늘리기 위해 콩재배기술, 방법 등을 전파하고 있음.

얇그루감자심기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감자농사를 통해 인민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종자확보, 싹틔우기, 유기질비료 생산과 실어내기, 적지선정과 땅다루기 등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있음.

수의위생방역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각지에서는 집집승 예방점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단위의 위생점검 또한 실시하고 있음. 봄철영농작업 기간에 들어서 부림소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토끼, 오리 등의 집집승 기르기를 통해 많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고 있음.

박천군의 새 물길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연안군의 예성강 물길과 구암 저수지의 물길을 합치는 공사가 완성되었음. 부침땅을 늘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통천군에서 70여 정보의 토지를 개간하였으며, 봄철토지정리사업도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음.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대주기 위해 저수지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물보장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 데에 대한 당의 방침 하에 전국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 각 성에서는 혼성림을 조성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봄철을 맞아 산불막이대책을 비롯한 산림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과일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는 것과 동시에 키낮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농업 생산의 정상화를 위하여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농기계 수리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농촌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질 좋은 거름, 중소농기구, 영농자재를 많은 협동농장에 보내주고 있음.

1. 농업정책

- 농업의 주요 정책방침인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해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고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과학연구부문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함.

□ 농업정책

○ 농사차비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자(민주조선 1.24)

- 김정일은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라고 말함.
- 현실의 절박한 요구인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야 함.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잘해야 함.
- 각지 농촌들은 올해의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많이 심기 위한 사업에 계속 관심을 돌려야 함. 과학연구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야함.
-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협동농장들은 실정에 맞게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물질적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함.
- 각지 농촌들에서는 흙보산비료와 유기질복합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생산을 늘리며 생산한 비료를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함.

○ 모든 력량을 총집중하여(로동신문 2.22)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살림살

이가 흥성거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함.

- 시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시농촌경리위원회는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을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조직사업과 지휘를 해나가고 있음.
- 평양시 주변농촌들에서는 토양별 특성과 기후조건에 알맞은 논벼와 강냉이, 콩과 감자를 비롯한 종자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유기질비료 준비와 물 확보, 농기계수리정비와 농기구 준비를 하며 농사차비 기간에 사용될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음.
- 농촌들에서는 전반적인 물길을 자연흐름식으로 개조하여 관개구조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짧은 시간에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과학영농

○ 알곡증산을 담보하는 혁신적인 농사작전(민주조선 1.31)

- 김정일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것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함.
-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평양지방의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재배면적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의 요구대로 농업생산에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음.
- 영농물자와 자재를 적게 들고 최대의 실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 논벼 품종배치에 따른 재배법과 포기수 설정문제, 벼모기르기 방법 등을 개선하여 모판용 비료를 절감하기 위한 문제 등을 구체화 시키고 있음. 특히 영농실천에서 효과가 입증된 속성영양랭상모기르기를 장려할 계획임.
- 비료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전충 및 생육후반기 심층시비 방법을 받아들이고 무경운재배, 두둑갈이방법 등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함.
- 알곡 대 알곡을 기본으로 두벌, 사이그루, 섞음그루, 겹재배를 하여 단위면적당 알곡 수확을 높일 목표를 내세웠음. 이를 위해 감자농사는 두벌, 겹재배에 의한 올감자 파종면적을 늘리고 콩농사는 좋은 품종선택을 통해 포기수 보장을 정확히 하되 영양단지재배 등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도입하는데 주목하고 있음.

- 또한 땅의 지력을 높이며 유기질거름 농사짓기에도 주목하고 있음. 논밭 정보당 20~30 톤의 좋은 유기질거름과 많은 토지개량재를 내고 흙갈이를 할 목표를 세움.
- 이 밖에 농장원의 생산의욕 문제, 새땅 찾기와 빈땅에 씨불임 면적을 높이는 문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며 저수확지대의 농사를 혁신하는 문제, 급수사령체계를 세우고 물관리 과학화를 통해 침수와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의 문제에도 집중하고 있음.

2. 벼농사

□ 각지 협동농장에서는 올해 농사차비 준비와 씨뿌리기 사업에 한창임. 농사차비가 한 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기 위해 전 인민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지대별 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제철에 씨를 뿌리 위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음.

□ 농사차비

○ 새해농사차비를 앞섬있게(민주조선 1.13)

- 운전군 관해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농사차비를 하고 있음.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훨씬 늘릴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거름과 생물활성퇴비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생산과 실어내기에도 관심을 쏟고 있음.

○ 비상한 각오를 안고(민주조선 1.15)

- 청단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새해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김정일은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능란하게 하고 있으며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운 작전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첫 시작부터 기세 좋게(민주조선 1.15)

- 락랑구역 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늘릴 일념으로 준비사업을 하고 있음.
-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내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하

고 있으며 거름생산과 모판자재준비, 농기계 및 중소농기구준비 등 농사차비의 모든 공정별 작업들을 동시에 해나가고 있음.

○ 농사차비도 강선의 본때로(민주조선 1.18)

- 룡성구역 화성협동농장에서는 농사차비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군들은 농사차비의 순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등 경제조직사업도 실정에 맞게 계획하고 있음.
- 특히 기술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농사차비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민주조선 1.23)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새해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김정일은 “농사준비를 잘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말함.
- 모든 논밭에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정보당 40톤 이상씩 내며, 새로 토지 정리한 300톤 정보의 논에는 유기질비료 50톤에 진거름 10톤을 더 내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벌이고 있음.
- 새해농사차비에서는 청년작업반이 참여하고 있음. 이들은 올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침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노동력과 료전기재를 총집중시키고 있음.

○ 세차게 타번지는 혁신의 불길(민주조선 1.24)

- 평안남도안의 농촌에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농사차비를 하고 있음.
- 김정일은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원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 농사차비를 실시해 나가고 있음. 군안의 다른 농장들은 지력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작업반별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짓자면 거름도 많이 내고 복합미생물비료도 널리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분조들에서 거름생산과 관련한 일일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도록 하는 한편 모범적인 농장원들에 대한 평가사업도 적극 실시하여 열의를 북돋고 있음.

○ 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집중(로동신문 1.27)

- 김정일은 “지금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사업은 없다.”라고 말함.
-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시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지난해 농사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기초로 종자선택과 유기질비료준비, 물확보, 농기계수리정비와 농기구 준비를 비롯한 농사차비를 실시하고 있음.
- 시 주변 협동농장의 토양별 특성과 자연조건에 맞게 논벼와 강냉이, 콩과 감자를 비롯한 농작물들의 생육조건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문제의 파악을 통해 올해 심어야 할 품종을 선택한 후 종자를 미리 확보하여 보관하게 하고 있음.
- 평양시주변 농촌들은 부침땅 지력을 높이는 것을 생산량 증대의 중요사안으로 삼고 질 좋은 유기질비료와 흙보산비료 생산을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쓰고 있음.

○ 태천군, 흙갈이 고조(민주조선 2.5)

- 태천군에서는 올해 농번기 전에 110정보에 달하는 논에 흙갈이하여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는 것을 군의 목표로 삼고 있음.
- 김정일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말함.
- 태천군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농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장악지도사업을 적극 세웠음.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매 협동농장들에서 여러 대의 트랙터를 흙갈이에 동원할 수 있게 함.
- 지휘부의 일군들은 매일 작업과제를 명확히 주는 한편 룬전기재가 움직이는데 맞게 곳곳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실동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올해 농사차비 마감 단계(로동신문 3.2)

- 전국적으로 각지 협동벌에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흙갈이가 전부 끝났으며 영농자재를 비롯한 다른 항목의 확보실적도 지난해 같은 때보다 훨씬 늘어났음.

- 각지 농기계작업소와 관개관리소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나라의 식량문제를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올해 영농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

○ 농사차비에서 계속 혁신(민주조선 3.7)

- 황주군 군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올해 들어 600여 톤의 유기질복합알비료를 생산하였음.
- 황주군 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230대의 트랙터 수리를 기한 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함.
- 트랙터 수리성과와 관련된 부속품 보장 문제를 위해 힘을 쏟았으며 2달 남짓한 기간에 230 대의 트랙터 수리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수리정비를 진행하고 많은 농기계들도 생산하였음.

□ 씨뿌리기

○ 벼랭상모판씨뿌리기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3.23)

- 황해남도안의 농촌에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가 시작됨.
-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봄철의 기상조건에 맞게 씨뿌리기 계획을 세우고 씨앗을 과학기술적으로 뿌리기 위해 배천군 금성협동농장에서 보여주기 사업을 실시하였음.
- 연백별안의 농촌에서는 농업근로자들 모두가 기상 조건과 벼 품종에 따라 모내기 날짜를 잘 타산하여 씨뿌리기 적기를 정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뿌리기를 해나가고 있음.

○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로동신문 3.23)

- 김정일은 “농촌경리부문에서 지대별, 필지별 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제철에 씨를 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각지 농촌의 일군들은 강선의 기질로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씨뿌리기의 시기와 양을 정확히 규정하여 씨뿌리기 계획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음.

- 모판에 부식토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내는 동시에 모판 수평을 정확히 보장한 상태에서 씨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음.

○ 벼랭상모판씨뿌리기에 큰 힘을(민주조선 3.25)

- 김정일은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영농준비를 제때에 철저히 하고 씨뿌리기에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하며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때 공정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함.
- 황해남도안의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배천군 금성협동농장에서 시범을 보인 사업을 일반화하기 위해 조직한 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일군과 농업근로자에게 씨뿌리기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씨뿌리기를 제철에 (민주조선 3.27)

- 김정일은 “농촌경리부문에서 지대별, 필지별 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제철에 씨를 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벼랭상모판씨뿌리기는 논벼농사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주체농법대로 진행해야 하며 적기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하여 실한 싹을 틔워야 하며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를 잘 활용하여 모판을 잘 걸구어야 함.

○ 일정계획을 어김없이(민주조선 3.27)

- 김정일은 “...농사일은 시기를 다투는 일이므로 제철에 끝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엄청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함.
- 룡천군위원회에서는 군안의 많은 협동농장에서 선진화된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씨뿌리기에서 있어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벼랭상모판씨뿌리기가 시작되자 각지의 일군들은 당면한 영농공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벼랭상모판씨뿌리기가 시작되었다(민주조선 3.29)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살림살이가 흥성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이 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함.
- 연백별안의 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배천군 금성협동농장의 씨뿌리기 경험을 모든 농장에 일반화하도록 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군안의 매 협동농장들의 작업반, 분조포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에 맞는 기술적 지도를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음.

3. 밭농사

- 두벌농사 방침에 따라 각지에서는 봄밀, 보리씨 뿌리기를 실시하고 있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콩농사를 짓고 있으며 콩농사 면적을 늘리기 위해 콩재배 기술, 방법 등을 전파하고 있음. 전국 콩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를 진행하여 농업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음.

□ 이모작동향

○ 봄밀, 보리씨뿌리기 적극 추진(민주조선 2.28)

- 김정일은 “우리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튼튼히 하고 두벌농사를 우리 농업의 주체적 영농체계, 우리 식의 농법으로 확고히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함.
- 황해북도안의 농촌에서 봄밀, 보리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여주기와 기술전습 등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 농업근로자들에게 과학기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함.
- 수확고가 높고 생육기일이 짧은 종자를 준비한 군안의 협동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같이수단에 집중하는 한편 마련한 종자처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룡천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도 두벌농사방침을 받아들여 지난해보다 넓은 면적에서 봄밀, 보리씨뿌리기를 하고 있음.
- 김정일은 “두벌농사를 실속 있게 하여 그 효과성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밀, 보리씨뿌리기 시작(로동신문 4.7)

- 김정일은 “농촌경리부문에서 지대별, 필지별 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제철에 씨를 뿌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함.
- 군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트랙터와 룬전기재의 기술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만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음.

- 백두삼천리별의 홍암농장에서는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었음. 군과 농장의 일군, 작업반장은 밀, 보리씨뿌리기에 지난 시기 이룩한 경험을 분석하고 영농공정에서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토의를 하였음.
- 군안의 모든 농장에서는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를 많이 실어내어 포전을 기름지게 하였음.

□ 콩농사

○ 콩농사 준비를 빈틈없이(민주조선 2.11)

- 자성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콩농사 준비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콩농사 준비를 빈틈없이 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있으며 이미 확보한 좋은 품종의 종자관리에도 힘쓰고 있음.
- 기름생산을 늘여 콩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콩밭정보당 수십 톤의 질 좋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전국 콩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진행(민주조선 2.28)

- 전국 콩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가 24-25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됨.
- 발표회 및 전시회에서는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대학교원, 현장일군,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최근 콩농사와 과학농사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농업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음.
- 발표회 및 전시회에서는 우량품종의 콩 육종과 품종배치, 콩의 재배기술과 방법 개선, 유기질 비료와 농약의 생산과 이용에서 이룩한 성과자료들이 전시되었으며, 140여 건의 연구논문이 발표됨.
- 콩농사 적지를 바로 정하고 콩그루사이의 거리와 이랑사이 거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 정보당 소출을 높이는 방법, 콩병을 억제하고 성장단계의 특성에 맞게 비료 주기를 과학적으로 도입하는 콩재배 방법이 소개되었음.

4. 감자농사

-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의 관철을 위해 앞그루감자심기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감자농사를 통해 인민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종자확보, 싹틔우기, 유기질비료 생산과 실어내기, 적지선정과 땅다루기 등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있음.

□ 감자농사 정책

- 총공격전의 기상으로 세차게 실시(민주조선 1.17)
 - 김정일은 “량강도농사에서 기본은 감자농사이며 량강도에서는 감자농사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량강도안의 농촌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감자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현지 일군들은 땅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집중하면서 종자보관관리와 농기계 수리정비, 중소농기구생산과 부속품생산, 영농물자와 자재 보장대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감자농사 준비

- 앞그루감자심기준비를 다그친다(로동신문 3.14)
 - 황해남도안의 농촌에서는 감자종자싹틔우기를 진행하는 동시에 냉상처리 과정에 들어갔음.
 - 당의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의 관철을 위해 농업근로자들은 앞그루로 감자를 심을 적기를 바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음.
 - 각지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올해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더 늘리고 모든 포

전에서 상당한 소출을 내기 위해 조직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지대적 조건에 맞게 종자보관과 싹틔우기, 랭상처리 등 모든 영농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앞그루감자심기가 시작되었다(민주조선 3.21)

- 김정일은 “두벌농사를 실속 있게 하여 그 효과성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황해남도안의 농촌에서 앞그루감자심기가 시작되었음.
-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앞그루감자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 또한 착실히 수행하고 있음.
- 협동농장에서는 알곡 대 알곡을 위주로 하고 앞뒤그루에서 다 같이 최대한의 소출을 낼 수 있도록 두벌농사면적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주체농업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적 지도를 하고 있음.

○ 농사차비를 마감고비에서(민주조선 3.21)

- 김정일은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함.
- 자강도의 감자산지 랑림군에서는 감자농사차비가 마감고비에 진입하였음.
- 현재 읍, 련화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정보당 30톤 이상씩 거름을 내도록 한 거름생산 계획을 이미 초과하여 수행하였으며 계획보다 2배나 되는 흙보산비료원료를 마련하였음.

○ 앞그루감자심기 활발(로동신문 3.25)

- 김정일은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이다.”라고 말함.
- 황해남도안의 도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에서는 도적인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기에 감자심기를 질적으로 해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황해남도안의 농촌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종자싹틔우기와 랭상처리, 거름생산과 받 같이 등 앞그루감자심기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으며, 감자심기를 시작하였음.

5. 축 산

- 수의위생방역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각지에서는 집짐승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단위의 위생 점검 또한 실시하고 있음. 봄철영농작업 기간에 들어서 부림소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각지에서는 부림소 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토끼, 오리 등의 집짐승 기르기를 통해 많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고 있음.

□ 축산동향

- 수의방역사업을 추진하여(민주조선, 노동신문 3.25)
 - 김정일은 “축산업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수의방역사업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3, 4월은 수의위생방역 기간으로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수의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축산물 생산보장을 이루어야 함.
 - 축산단위에서는 모든 집짐승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며 예방약생산단위에서는 접종에 필요한 예방약을 지표별로 제때 생산 보장해야 함.
 - 모든 축산단위에서는 생산 환경을 깨끗이 꾸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봄철 날씨조건과 집짐승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사양관리를 책임적으로 실시하여 집짐승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함.

□ 소

- 부림소관리에 힘을 넣어(노동신문 1.22)
 - 삼수군 중률협동농장 제6작업반에서 겨울철부림소관리를 잘하고 있음.
 - 부림소관리공들은 소우리를 제때에 보수하고 있으며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 놓고

이용하고 있음. 또한 모범적인 농장원을 적극 소개 선전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 하도록 하고 있음.

○ 부림소의 이용률을 높여(로동신문 3.28)

- 경흥군 양덕협동농장에서는 해마다 부림소를 확보하고 그 이용률을 높여가고 있음. 현재 수백 마리의 부림소와 수십 마리의 후보소를 보유하고 있음.
- 리당위원회의 지도아래 양덕협동농장은 10여 년 전부터 부림소 마리수를 늘리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세우고 분조장, 작업반장을 비롯하여 초급일꾼들이 이 사업에 앞장서도록 하였음.
- 작업반에서는 부림소와 후보소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사양관리체계를 세우고 이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 모든 소의 영양 상태를 높이고 있음.
- 봄철영농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부림소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발갈이는 물론 논갈이 또한 부림소가 하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토끼

○ 방역규율을 엄격히 지켜(민주조선 3.25)

- 김정일은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의방역사업이다. 축산에서 수의방역사업은 생명과 같다.”라고 말함.
- 이에 따라 각지 종축장에서는 토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종축장에서 배설물을 미생물로 처리하는 사업도 동시에 실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방역시설을 정비 보강하는 등 환경을 수의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 오리

○ 더 많은 오리와 게사니를(민주조선 3.17)

- 김정일은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함.

- 안악군 룡산협동농장에서는 해마다 많은 오리와 계사니를 기르고 있음. 지난해에서 수천마리의 오리와 계사니를 길러 많은 양의 고기와 알을 생산함.
- 농장에서는 오리와 계사니 기르기에 필요한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작업반과 농가에서 우리를 잘 짓도록 하는 한편 종축작업반의 역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음.
- 농장에서는 오리와 계사니의 생육상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여름에는 이동방목도 널리 조성할 예정임.
- 죽당기를 비롯한 먹이가공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앞선 먹이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오리와 계사니 먹이 문제 또한 잘 해결하고 있음.

○ 기술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민주조선 4.5)

- 김정일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함.
- 광포오리공장의 일군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기술혁명을 통해 축산물생산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먹이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해결하면서 설비현대화를 통해 오리고기생산원가를 공장조업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만들었음.
- 공장의 기술자들은 부문연구사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종전에 이용하던 먹이첨가제를 대신하는 값싸고 생산성 높은 첨가제를 자체로 연구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미생물에 의한 대용먹이생산기지를 훌륭하게 이뤄냄으로써 부족한 먹이를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담보를 마련해 놓았음.

6. 농업기반

- 박천군의 새 물길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연안군의 예성강 물길과 구암 저수지의 물길을 합치는 공사가 완성되었음. 부침땅을 늘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통천군에서 70여 정보의 토지를 개간하였으며, 봄철토지정리사업도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음.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대주기 위해 저수지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물보장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물길공사

○ 새 물길공사 완공(로동신문 1.25)

- 박천군에서 새해 첫 사업으로 수십만 m³의 토량을 처리하고 연 40여 리의 물길공사를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함.
- 새 물길 완공으로 단산지구의 논에 대한 관수 및 배수체계가 완비되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전망이 열렸음.
- 김정일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당원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고 말함.

○ 6만산 발파 진행(민주조선 2.21)

- 미루벌 물길공사장에서 6만산 발파가 진행되었음.
- 여단지휘부 일군들은 구체적인 계획 아래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실시하여 공사를 일정대로 추진하였음.
- 6만산 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큰 규모의 저수지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됨.

○ 두 물길이 한줄기로 합쳐졌다(민주조선 2.26)

- 김정일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함.
 - 6일간의 짧은 작업을 통해 연안군의 예성강지선 물길과 구암 저수지의 물길이 합쳐졌음. 두 물길이 합쳐짐으로써 해남, 신양협동농장을 비롯한 8,000여 정보에 달하는 논에 물을 원만히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연 2만여 km의 물길을 정리(로동신문 3.30)
- 김정일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함.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농촌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물길과 중소물길에 대한 정리를 실시하여 연 2만여 km의 물길을 정리하였음.
 - 특히 연안군에서는 수천m³의 흙을 처리하고 800m²의 면적에 장식공사를 하여 40여 km의 물길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조선의 대지에 개척된 3,000여리의 자연흐름식 물길 (민주조선, 로동신문 4.6)
- 김정일은 “우리는 자연흐름식물길을 많이 건설하여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함.
 - 주체91(2002)년 10월 2년 남짓한 기간을 걸쳐 처음으로 자연흐름식의 개천-태성호 물길이 준공되었음. 현재 전국적인 총연장길이는 3,000여리에 이르렀음.
 - 조선로동당창건 60돐을 맞아 백마-철산물길이 건설되었음. 총연장길이가 약 700리에 달하는 이 물길은 3만kW의 전력사용을 앓고 평안북도의 수만 정보 논밭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공급할 수 있음.
 -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이 은파군 강안리 6지선물길, 태탄군 류정해 안물길 등 각각 100여리의 물길을 건설한 것을 비롯하여 주체94(2005)년 영농기전까지 많은 자연흐름식물길을 새로 형성하였음.
 - 주체95(2006)년에는 평양시와 강원도, 함경남도 등지에서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이 더욱 진척되어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물길이 생겨남.
 - 함경북도에서도 총연장길이가 근 300여리에 달하는 물길을 건설하여 수천kW의 양수동력을 쓰지 않으면서 6,500여정보의 부침땅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게 됨.

□ 토지정리

○ 70여 정보의 토지가 개간된다(민주조선 2.28)

- 통천군에서 수만 m²의 돌을 쳐내고 흙갈이와 거름내기를 진행하며 수천 미터 구간에 제방을 쌓는 토지개간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 김정일은 “부침땅을 끊임없이 늘이는 것은 토지 관리에서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라고 말함.
- 군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빠르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리된 포전을 더욱 기름지게(민주조선 3.6)

- 김정일은 “토지정리를 하여 포전들이 새 땅으로 된 만큼 거름을 많이 내어 걸구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말함.
- 곡산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알곡생산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정리된 포전에 정당 30 톤 이상의 질 좋은 거름과 5 톤 이상의 흙보산비료, 많은 생물활성퇴비와 토지개량제를 내고 흙갈이를 할 계획임.

○ 미루벌에서 봄철토지정리가 시작되었다(민주조선 3.25)

- 김정일은 “토지정리사업도 해야 한다.”라고 말함.
- 돌격대지휘부에서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봄철토지정리목표를 높이 세우고 최상의 수준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송림리와 능수리 토지정리를 맡은 연탄군돌격대와 봉산군돌격대원들은 설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황주군돌격대와 서흥군돌격대원들 역시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대성리의 토지정리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이 외에도 곡산군, 토산군, 연산군, 평산군, 장풍군, 름산군돌격대를 비롯한 각 군의 돌격대원이 토지정리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변모된 대지, 늘어나는 옥토(민주조선 3.31)

- 김정일은 “토지정리사업을 힘 있게 벌려 필요 없는 논두렁과 웅덩이, 돌각담을 없애고 부침땅면적을 더 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서흥군에서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고성리, 송월리 일대의 65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정리하였음. 7,000m²에 달하는 돌을 채취해내고 10여 정보의 새땅을 새로 찾아냈음.
- 지난 시기 여러 요인에 의해 유실, 매몰되었던 논밭을 원상복구하며 돌이 많고 냉습피해를 받던 고성리, 송월리 일대 땅의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새땅을 얻어낼 목표를 세우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

○ 봄철국토관리 총동원사업에 펼쳐나섰다(로동신문 3.16)

- 김정일은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라고 말함.
- 국토환경보호 부문 및 연관부문에서는 봄철국토관리 총동원기간에 산들, 주요 도로, 철길주변, 주민지구와 공원, 강하천기슭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수백 정보의 소나무림을 잣나무림으로 개조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음.
- 도로건설과 기술재건, 강하천 정리와 해안방조제 보수, 도시와 마을꾸리기 등 국토관리 전반사업에도 동시에 힘을 쏟고 있음.
- 각지에서 지대특성에 맞게 아카시아나무, 창성이깔나무, 뽕나무 등을 비롯한 경제적가치가 크고 빨리 자라는 수종을 많이 심고 있음.

○ 강하천 정리를 전투적으로(로동신문 4.1)

- 황주군에서 방대한 천주천 정리공사를 단 일주일사이에 끝내는 성과를 이뤄냄.
- 군에서는 천주천 정리공사를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끝낼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으며, 석정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이 공사에 앞장섰음.
- 7일 동안에 8,000m에 달하는 강하천구간에 제방돌입히기와 쌓기, 바닥파내기 등을 통해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가물철에는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뤄냄.

○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민주조선 4.5)

- 김정일은 “국토관리사업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며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여 삼천리금수강산을 인민의 낙원으로 더 잘 꾸리려는 것이 당의 의도이고 결심이다.”라고 말함.
- 봄철은 국토관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유리한 계절이며 중요한 시기임. 봄철은 땅이 녹아 나무를 심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때에 한해 나무심기의 90%를 진행함.
- 봄철에 강하천 바닥파기, 물줄기 바로잡기, 제방건설과 보수, 보강사업에 힘을 넣지 않으면 장마철에 큰물에 의한 피해를 면할 수 없음.

□ 저수지

○ 물잡이를 대대적으로(민주조선 2.10)

- 김정일은 “저수지에 물을 채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농업성과 각지 관개부문 일군들은 올해 농업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를 관개용수를 넉넉히 보장하는데서 찾고 저수지마다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각지 농촌에서는 보조 수원 물잡이에도 힘을 쏟고 있음. 함경북도·남도과 평안북도, 강원도에서는 보조 수원의 물로 올해 농사의 씨불임을 보장하기 위한 논판물잡이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이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보막이, 물주머니 만들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해물길에 생겨난 저수지(민주조선 3.14)

- 김정일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함.
- 온천군 운하리와 석치리, 안석리 사이의 서해물길이 새롭게 정리되어 하나의 저수지가 생겨났음.
- 연 십여km에 달하는 물길이 정리되었으며, 5천여 m에 달하는 구간의 물길 폭이 3배나 넓어짐으로써 물통과 능력이 배로 늘어나 군안의 수천정보에 달하는 간석지

논에 자연흐름식으로 물을 원만히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었음.

- 군에서는 운하리부터 안석리 사이의 물길정리와 바닥파기 사업, 운하리지구의 물길 폭을 넓히고 구조물을 세워 더 많은 물을 저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물보장사업

○ 양수동력설비를 질적으로 수리정비(로동신문 3.7)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지어야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함.
- 각지 관개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빠른 기간 안에 양수동력설비 수리정비를 완전히 끝낼 목표아래 계속적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7. 산 림

-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 데에 대한 당의 방침 하에 전국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 각 성에서는 혼성림을 조성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봄철을 맞아 산불막이대책을 비롯한 산림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임업정책

○ 산판마다 혁신의 기상 나래친다(민주조선 1.22)

- 김정일은 “임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의 노동계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함.
- 강원도림업관리국에서는 새해 통나무 생산에 진입하기에 앞서 수십 리에 달하는 임산도로 건설 및 보수를 끝내고 새로 15개의 산지합숙을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노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필요한 자재, 설비를 보장해 줌.

○ 산판마다에 혁신의 기상 나래친다(민주조선 1.29)

- 김정일은 “통나무생산을 늘리는데서 겨울철 통나무생산전투를 힘 있게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 “통나무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한다.”라고 말함.
- 121호 임업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산판에 노력과 기계수단을 총집중하여 겨울철에 연간 통나무생산의 많은 몫을 이룩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생산지도해 나가고 있음.
- 성간임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겨울철 통나무 생산에서 최고 생산수준을 이룩하기 위해 매일 계획보다 2~3배 이상의 통나무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음.

- 이달에 들어 지금까지 통나무 마감나르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하여 1.5배 이상 에 달함.

□ 산림조성

○ 더 많은 혼성림을 조성할 목표아래(민주조선 2.24)

- 김정일은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리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함.
- 평성시인민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쓸모없는 나무를 베어내고 경제적 가치가 큰 나무들로 더 많은 혼성림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움.
- 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앞장서서 시안의 산을 현지답사하면서 산림조성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있음.
- 베어낸 나무들을 제때에 끌어내어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조직해나가고 있음.

○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로동신문 3.16)

- 김정일은 “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를 잘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함.
- 배천, 연안군에서는 군 양묘장에서 아카시아나무, 세잎소나무, 평양포플러나무 등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현장에 보내주었음.
- 식수절 하루 동안에만 배천군 소재지의 여러 지구에 5만여 그루의 나무를, 연안군 소재지의 북산지구에만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이뤄내었음.

○ 수유나무림 면적이 늘어난다(민주조선 3.18)

- 김정일은 “나라의 산림자원은 우리 인민자신의 재산이며 산림자원을 늘리는 사업은 조국의 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라고 말함.
- 서흥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유나무림을 많이 조성하여 그 덕을 보았으며, 올해에는 100정보의 수유나무림을 더 조성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음.
- 군에서는 기관, 기업소를 비롯한 군안의 모든 단위에 수유나무심기과제를 정확히 주고 나무심기를 제철에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군산림경영소에서는 군안의 기관, 기업소일군을 대상으로 수유나무심기와 관련한 방식상학을 실속 있게 진행하였음.

○ 풍치림조성사업 활발(로동신문 3.20)

- 김정일은 “기관, 기업소와 협동단체들에 조림구역을 정해주고 나무를 책임적으로 심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력포구역에서는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이용하여 거리와 마을, 공원, 유원지에 풍치림조성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음.
- 풍치림을 조성하기 위해 각 구역에서는 동명왕릉주변과 여러 도로 옆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을 것을 계획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음.

○ 산림조성사업을 군중적으로(로동신문 3.31)

- 평안북도에서 올해에 1만 8,600여 정보의 산림을 조성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봄철나무심기를 위해 조직동원을 하고 있음.
- 김정일은 “산에 경제적으로 쓸모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한다.”라고 말함.
- 도에서는 봄철산림조성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나무모생산을 앞세우기 위해 시, 군에서 양묘장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쓸모 있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게 하고 있음.
- 선천군은 앞선 씨뿌리기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으며, 신의주시에서는 빨리 생육하는 나무를 중점적으로 심고 있음. 삭주군에서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조림구역을 정해 해당 단위의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 활발(로동신문 4.3)

- 수도 평양의 유원지와 공원, 거리와 마을에서는 나무심기가 한창임. 특히 룡악산유원지에는 며칠사이 평양단풍나무, 느티나무, 밤나무 등 약 5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황해남도에서는 시, 군산림경영소, 기관, 농장 등 모두가 열심히 나무를 심어 3월에 5,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이뤄냄.
- 황해북도와 강원도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수백만 그루의 넓은잎나무와 바늘잎나무를 배합하여 풍치림, 보호림조성을 하고 있으며 수유나무를 기본으로 기름나무도 심고 있음.

□ 산림보호

○ 산불을 철저히 막자(로동신문 3.17)

- 김정일은 “산림을 보호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을 철저히 막는 것이다.”라고 말함.
- 산림보호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며 산불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감시체계와 통보체계, 동원 체계를 잘 세워야 함.
-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과 근로자가 산불을 감시해야 하며,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 모두가 힘을 합쳐 제 때에 산불을 꺼야 함.
- 일군들은 우선 산불막이선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어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 번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입산질서를 잘 세우며 산림지역의 전기선을 잘 정비하고 있음.
- 산림감독원은 우선적으로 산림순시원과 산불감시원의 대열을 잘 꾸리고 이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있음.

○ 산림보호사업을 군중적으로(로동신문 3.20)

- 김정일은 “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산림조성사업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함.
- 산림보호사업에서의 기본은 산림감독원의 역할이므로 군산림경영소에서는 산림감독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 있음.
- 산림감독원은 자기 담당의 산림자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산불방지대책과 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산마다 《산림애호》, 《산불방지》라는 팸말을 곳곳에 붙여 산림감독원 뿐만 아니라 모두가 산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산불막이대책을 빈틈없이(민주조선 4.6)

- 최근 산림조성사업을 통해 많은 나무를 심은 화평군에서는 산림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산불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군에서는 산림경영기관과 산림감독기관 일군을 현지에 내보내 산림보호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중흥지구, 가산지구, 읍지구, 진송지구 등 현지에 나간 일꾼들은 산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통제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 통나무생산

○ 겨울철통나무 생산에서의 혁신(로동신문 1.22)

- 량강도림업관리국 산하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겨울철 통나무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음.
- 김정일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았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천 m³의 통나무가 더 생산되었음.
- 풍서, 갑산림산사업소의 생산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나무 운반을 통이 크게 벌리면서 생산을 늘리고 있음.
- 유평림산사업소, 백암갯목생산사업소의 일꾼들도 생산조건이 유리한 겨울철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확대시키고 있음.

○ 산판에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로동신문 1.25)

- 김정일은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날 목재생산을 높이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라고 말함.
- 새해공동시설의 과업을 받아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연초부터 겨울철통나무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종합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매일 150%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24일 현재 임업성적으로 월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110% 수행하였음.
- 도림업관리국의 일꾼들은 생산조직을 지휘를 해나가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1월 계획 빛나게 수행(로동신문 1.30)

- 평안남도 임업관리국에서는 1월 통나무생산계획을 29일 현재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관리국에서 내세운 첫 달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여 탄광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줄 수 있게 되었음.

○ 통나무생산성과 계속 확대(로동신문 2.18)

- 김정일은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 목재생산을 높이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라고 말함.
- 임업성아래 각지 임업관리국에서 2월에 들어 생산실적이 연일 확대됨으로써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의 40% 계선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룩함.
- 성에서는 1사분기 안에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의 70%이상을 수행 해내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사분기계획을 완수한 기세 드높이 계속 혁신(민주조선 3.17)

- 김정일은 “임업부문의 모든 일군과 근로자들은 임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임업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함.
- 각지 임산사업소에서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통나무생산사업을 힘 있게 벌려 지난 3월 8일 현재로 1사분기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101.3%로 넘쳐 수행하였음.
- 각 성에서는 해당 부문과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아래 기계톱과 쇠파를 비롯한 많은 설비와 부속품, 자재를 해결하여 임산사업소와 갱목사업소에 보내고 있음.

○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수행(로동신문 3.17)

- 김정일은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산이며 오늘 목재생산을 높이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라고 말함.
- 종합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임업성 아래 30여개 작업소에서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음.
- 성에서는 올해 들어 통나무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 목표아래 능력 있는 일군을 각지 임산, 갱목생산사업소에 내려 보내어 그들이 생산조직을 지휘를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통나무생산에서 일 혁신(로동신문 4.2)

- 김정일은 “임업부문의 모든 일군과 근로자들은 임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임업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라고 말함.
- 년 초부터 룡하림산사업소에서는 통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 신흥작업소에서는 통나무원천이 많은 임지개발과 트랙터길 내기 등의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

행하였음.

- 삼수림산사업소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중평청년작업소에서는 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음.

□ 나무모 생산

○ 나무모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민주조선 3.21)

- 김정일은 “나무모생산을 앞세우는 것은 산림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라고 말함.
- 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해 마련해 놓은 수종이 좋은 나무 종자로 씨뿌리기를 진행한 다음 나무모발관리, 잣접림조성을 위한 가지저장, 올해 봄철나무심기에 쓸 나무모생산을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음.
- 경영소의 일꾼들은 모든 분소, 작업반들에서 나무모뜨기와 운반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 봄철 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를 제때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8. 기타 작물

- 과일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는 것과 동시에 키낮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품종의 과일 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과수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비배관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 과수

○ 키낮은 사과나무밭 관리에 큰 힘을(로동신문 3.3)

- 김정일은 “과수업부문에서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함.
- 고산과수종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키낮은 사과나무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모를 박고 있으며 정보다 100톤 이상의 거름을 실어낼 계획아래 부식토생산, 열두바닥파기 등을 통해 유기질비료를 많이 마련하였음.
- 룡전 과수농장과 평양, 온천, 사리원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지력을 높이는데 집중하며 더 많은 거름을 실어내고 있음.

9. 기타 보도 동향

□ 농업 생산의 정상화를 위하여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농기계 수리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 협동농장 및 도시에서는 거름 생산에 온 역량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농촌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질 좋은 거름, 중소농기구, 영농자재를 많은 협동농장에 보내 주고 있음.

□ 농기계

○ 농기계 수리를 힘 있게(민주조선 1.18)

- 만포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농기계 부속품 가공설비들을 새로 장비하고 기술자, 기능공의 기술기능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작업소는 크랭크축연마기, 착통보링기, 치절반을 비롯한 수십 대의 부속품가공설비들을 갖추어놓고 농기계 수리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농기계의 동음 더 높이 올리도록(민주조선 1.21)

- 김정일은 “협동농장들에서 농기계와 중소농기구를 알뜰히 다루고 제때에 수리 정비하여 농기계를 농산작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승호구역 광정협동농장에서는 이미 꾸려진 농기계수리기지의 물질 기술적 토대에 의거하여 각종 농기계를 제때에 수리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작업반원들은 창의적으로 여러 농기계와 혼합기, 성형기, 건조기 등 유기질복합비료생산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고 있음.

○ 농촌에 더 많은 트랙터를(로동신문 2.22)

- 김정일은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만부하를 걸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신의주 트랙터다이아공장 일군과 노동자들이 농촌에 더 많은 트랙터를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음.
- 공장에서는 지난 기간 다이아 생산공정을 완비하고 갱신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한데 기초하여 올해 더 많은 트랙터를 생산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움.
- 이곳 작업반 노동자들은 고무절단과 이감을 표준조작법대로 해나가고 있으며 다이아작업반 역시 재단, 성형, 조형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에서 공정간 연계를 긴밀히 하며 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담한 시도(민주조선 3.20)

- 김정일은 “지금 농촌에 있는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함.
- 청단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과 노동자들이 물과 기름을 혼합하여 트랙터연료로 이용하기 위한 생산기지를 새로 만들고 있음.
- 작업소에 건설되어 있는 이 생산기지는 원료의 혼합 및 첨가제의 작용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물과 기름이 서로 혼합되어 트랙터의 연료인 유탁액이 됨.
- 무엇보다 부족한 기름문제를 해결하고 트랙터의 가동률을 종전보다 높일 수 있으며 기름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량도 거의 영 상태에 가까워지므로 공해현상을 막는데도 유익함.
- 10대에 달하는 혼합기계작과 생산건물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지금 설비조립 마감단계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비료

○ 많은 양의 거름을 포전으로(민주조선 1.17)

- 김정일은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농업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마다 농촌을 힘껏 지원하여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연안군에서 전군중적 운동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군에서는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널리 소개하여 모든 단위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키도록 장려하고 있음.
- 첫 보름동안에 800여 만 톤의 거름을(로동신문 1.17)
 - 김정일은 “농업부문 일군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종합자료에 의하면 각지 농촌에서는 새해 첫 보름동안에 800여 만 톤의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0여 만 톤 더 실어낸 것임.
 - 황해남도과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각각 새해 첫 보름동안 170여 만 톤, 17여 만 톤의 거름을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포전마다 높아가는 거름더미(민주조선 1.22)
 - 김정일은 “농사를 잘 짓자면 영농준비를 연초부터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라고 말함.
 - 연안군안의 협동농장 일군과 농장원들은 지력을 높여야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집중 하고 있음.
 - 이 작업에는 소정, 읍, 도남협동농장이 앞장서 하고 있으며 이미 거름생산계획을 수행한 이 농장은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생산한 거름을 실어 나르고 있음.
- 농촌에 더 많은 도시거름을(민주조선 1.24)
 - 삼천군인민위원회에서 더 많은 도시거름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음.
 - 책임일군을 비롯한 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으며 단위에 맡겨진 도시거름생산과제를 무조건 초과수행하도록 총화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 새해에 들어 처음으로 하루 동안 570 톤의 도시거름을 논밭에 내가는 성과를 이룩함.
-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로동신문 2.22)
 - 김정일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라고 말함.
 - 온성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작업반마다 120m²규모의 태양열온실을 건설해놓고 군적으로 4만여 톤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향당협동농장에서 농장, 작업반 기술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면서 좋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도록 하였음.
- 한 개의 온실에서 한번에 50~60 톤씩 생산되는 흙보산비료는 질이 좋아 호평을 받고 있음.

○ 나날이 높아지는 거름더미(민주조선 3.5)

- 김정일은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땅을 걸구고 지력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하게 높은 수확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함.
- 상원군 흑우협동농장에서 거름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작업반원들은 거름 운반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트랙터와 같은 기계수단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동시에 소달구지를 비롯한 각종 운반수단도 이용하고 있음.

○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민주조선 3.25)

- 홍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암모니아생산공정 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한 쉼기모임이 23일 진행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은 김정일이 기술개선정형과 생산실태를 둘러보고 홍남의 노동계급이 생산공정을 현대화, 과학화하는데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고 말함.

□ 농촌지원

○ 농촌을 적극 지원(로동신문 1.17)

- 평안북도 일군, 당원, 근로자들은 수백 대의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질 좋은 거름, 중소농기구과 영농자재를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 농촌지원사업에서는 도급기관 일군들이 모범을 보이며 많은 거름을 마련하여 신의주시안의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 세차게 타오르는 농촌지원의 불길(민주조선 1.23)

- 김정일은 “우리는 앞으로도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자강도에서는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 농촌지원사업을 힘 있게 벌리고 있음.
- 농촌지원사업은 도급기관 정무원이 앞장서고 있음. 도시거름을 수십 대의 자동차에 싣고 장강군 향하협동농장과 장평협동농장, 강계시 주변협동농장에 나가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하고 있음.
- 평안북도에서는 새해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평안북도 농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십만의 질 좋은 거름과 20여 종의 30여 만점의 소농기고, 수많은 영농자재를 마련하여 도내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 농촌을 적극 지원(민주조선 1.25)

- 김정일은 “농장원 속에서 주인다운 자각과 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면서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말함.
- 량강도에서는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 일군과 근로자들이 정초부터 농촌지원을 통해 날마다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도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데 대한 공동시설의 과업을 받들고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들은 기관, 기업소, 공장, 동, 인민반별로 단계를 나누어 거름생산과제를 주고 원천을 찾아 거름을 생산하면 바로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농장포전에 실어다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고 있음.

○ 성, 중앙기관들에서 농촌을 적극 지원(로동신문 2.11)

- 교육성에서는 1,400여 점의 트랙터부속품과 960여 점의 중소농기구를 재령군 래림협동농장에 보내주고, 많은 분토와 영농물자를 가지고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을 찾음.
- 경공업성과 국가품질감독국에서는 곡산군과 평양시주변의 농장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 점의 중소농기구, 분토 등을 지원함.
- 수매량정성, 도시경영성에서는 평양시 주변농장에 계급교양관리도국, 대성은행, 농업출판사에서는 강서군 잠진, 황주군 삼정, 대동군 시정협동농장에 많은 영농물자를 보내주었음.

□ 현지도

○ 김정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현지도(민주조선, 노동신문 2.4)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이 동행하였으며 현지도사적비와 연혁소개실을 둘러봄.
- 김정일은 동봉산기슭에 줄지어 늘어선 현대적인 문화주택과 아담하고 깨끗하게 들어선 학교, 유치원, 인민병원, 문화회관, 상점 등 문화후생시설을 보고 마을을 아름다운 농촌도시로 변모시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함.
- 김정일은 농장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알곡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이면서도 방대한 건설을 자력으로 훌륭히 해냈다고 하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함.
- 김정일은 농촌에서 3대혁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에 대한 지원과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가 강화됨으로써 농민의 노동계급화와 농업의 공업화가 급속히 실현되고 농촌의 면모가 변모되었다며 이는 사회주의농촌체제와 자국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하였음.

○ 김정일,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지도(민주조선, 노동신문 2.7)

-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남기이 동행하였음.
- 김정일은 새 것을 지향하여 끊임없이 비약하고 전진하는 기업소의 전변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높은 생산력을 보이는 당원과 근로자들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함.
- 김정일은 농업생산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업소 앞에 나서는 강력한 과업을 제시함.
- 김정일은 경제적인 가스화암모니아생산공정이 꾸러지면 전력소비 기준을 훨씬 낮추고 우리의 원료자재에 기초한 공고한 생산토대를 축성할 뿐 아니라 비료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함.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북중 교역 동향

1.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2.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9년 1월 중 남북교역액은 11,302만 달러로 전년 동월 14,050만 달러에 비해 19.6% 감소(전월 12,245만 달러 대비 7.7% 감소)
- 반입은 6,85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893만 달러에 비해 0.5% 감소(전월 6,985만 달러 대비 1.8%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8.0%, 농림수산물 29.3%, 광산물 7.9%, 철강·금속제품 3.1%, 전기전자제품 10.6% 등임.
- 반출은 4,44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157만 달러에 비해 37.9% 감소(전월 5,260만 달러 대비 15.5%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5.8%, 농림수산물 6.2%, 섬유류 34.7%, 기계류 17.3%, 전기전자제품 17.5% 등임.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9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2,010만 달러로 전월 1,781만 달러 대비 12.8% 증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가하고 1월 전체 반입액 6,858만 달러의 29.3%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66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9.7%), 합판 등 임산물이 1.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1,34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9.5%)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9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74만 달러로 전월 311만 달러 대비 11.9%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3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5.2%), 분유 등 축산물이 8.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판 등 임산물이 9.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2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 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9년 2월 중 남북교역액은 10,086만 달러로 전년 동월 11,888만 달러에 비해 15.2% 감소(전월 11,301만 달러 대비 10.8% 감소)
- 반입은 5,914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990만 달러에 비해 1.3% 감소(전월 6,858만 달러 대비 13.8%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3.4%, 농림수산물 20.1%, 광산물 6.9%, 철강·금속제품 3.7%, 전기전자제품 12.3% 등임.
- 반출은 4,172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898만 달러에 비해 29.3% 감소(전월 4,443만 달러 대비 6%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5.3%, 농림수산물 7.2%, 섬유류 38.8%, 기계류 11.9%, 전기전자제품 16.5% 등임.

□ 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9년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191만 달러로 전월 2,010만 달러 대비 40.7% 감소하고 2월 전체 반입액 5,914만 달러의 20.1%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4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4.1%), 합판 등 임산물이 1.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94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5.9%)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9년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02만 달러로 전월 274만 달러 대비 10.2%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5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6.2%), 분유 등 축산물이 5.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합판 등 임산물이 12.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26.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6%)를 차지했음.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9년 3월 중 남북교역액은 10,874만 달러로 전년 동월 15,789만 달러에 비해 3.1% 감소(전월 10,086만 달러 대비 7.8% 증가)
- 반입은 6,77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931만 달러에 비해 14.6% 감소(전월 5,914만 달러 대비 14.5%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50.2%, 농림수산물 18.2%, 광산물 4.7%, 철강·금속제품 2.8%, 전기전자제품 11.6% 등임.
- 반출은 4,10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858만 달러에 비해 47.8% 감소(전월 4,172만 달러 대비 1.7%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제품 8.6%, 농림수산물 6.4%, 섬유류 30.7%, 기계류 16.1%, 전기전자제품 17.5% 등임.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9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230만 달러로 전월 1,192만 달러 대비 3.1% 증가하고 2월 전체 반입액 6,773만 달러의 18.1%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3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14%), 합판

등 임산물이 0.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99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4.7%)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9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60만 달러로 전월 302만 달러 대비 13.9%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0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9%), 분유 등 축산물이 14.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합판 등 임산물이 20.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21.6 달러(전체 반출액의 0.5%)를 차지했음.

표 1. 2009년 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518,243	4,093	4.1	농산물	5,591,434	4,757	7.4
농산물	2,813,670	6,661	10	농산물	3,021,026	2,347	5
대두	600,000	586		쌀	158,229	182	
녹두	400,000	404		감자	110,675	235	
강낭콩	82,595	54		밀가루	60,961	49	
완두	1,100	4		참깨	44,070	146	
참깨	32,083	114		들깨	9,500	13	
들깨	2,240	6		해바라기씨	1,000	2	
감자	41,500	91		사과	1,287	3	
기타곡싹류	2,400	4		오렌지	500	1	
무	60,000	76		감귤	500,166	231	
마늘	521,130	1,182		당근	1,000,000	217	
기타채소	225,606	432		마늘	743,060	706	
고사리	122,623	933		기타채소	9,927	26	
고비	6,650	63		밤	4,800	6	
영지버섯	15,947	66		기타산식물	23,000	36	
표고버섯	113,336	1,063		대두유	8,748	13	
기타버섯류	56,990	340		사료	144,573	70	
밤	41,110	51		기타소스류	1,138	3	
호도	40,000	351		커피조제품	3,172	9	
기타견과류	33,800	18		제조담배	1,171	52	
참기름	2,250	23		소주	8,860	11	
기타유지 가공품	10,925	39		맥주	4,129	4	
된장	14,280	26		정당	60	1	
제조담배	5,170	105		비스킷	8,296	16	
식물성한약제	231,641	520		곡류가공품	87,949	144	
물	116,280	21		빵	11,810	56	
면류	30,000	21		면류	15,501	43	
견	4,014	69		기타농산가공품	57,648	57	
				견	617	14	
축산물	-	-	-	축산물	11,937	87	0
				쇠고기	-	-	
				소시지	1,645	3	
				우유	6,498	51	
				분유	1,720	28	
				기타낙농품	1,300	2	
				난류	774	4	
임산물	11,010-	13 -	-	임산물	108,032	99	0
목제식탁용품	10,000	12		합판	59,892	70	
기타임산부산물	250	1		섬유판	1,000	1	
				기타목재류	36,720	13	
				수목류	10,000	12	
				종자류	400	2	
수산물	7,389,003	13,428	20 -	수산물	51,709	206	1
넙치	1,580	13		기타게	468	6	
대구	1,236	3		기타조개	2,354	8	
기타어류	16,995	39		기타수산가공품	48,886	193	
새우	358,157	2,125					
기타게	88,017	722					
문어	396,581	1,463					
낙지	4,700	10					
굴	38,052	59					
피조개	131,822	383					
기타조개	4,273,369	4,877					
기타연체동물	1,397,809	1,574					
꽃	1,775	39					
미역	52,572	39					
기타수산물통조림	22,992	79					
기타염장수산물	30,550	92					
건조수산물	4,257	20					
기타수산가공품	330,611	1,484					
기타수산물	237,928	408					
합 계	10,213,683	20,102	3	합 계	3,192,704	2,739	6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1호(2009.1.1~1.31).

표 2. 2009년 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029,888	2,435	4	농산물	2,221,140	2,590	6
땅콩	15,600	29		쌀	78,298	97	
참깨	25,003	88		감자	123,480	224	
들깨	4,850	12		밀가루	356,300	321	
기타곡실류	1,220	6		참깨	23,190	67	
마늘	524,440	673		들깨	22,500	26	
기타채소	96,224	157		감귤	1,280	3	
고사리	23,574	181		마늘	612,100	582	
고비	4,620	49		고추	320	1	
영지버섯	17,586	66		기타채소	5,217	9	
표고버섯	25,797	221		대두유	707,320	785	
기타버섯류	30,961	186		기타식물성유지	40	1	
밤	20,620	26		식물성액즙	30	1	
호도	39,775	353		사료	76,730	76	
기타견과류	60,000	46		기타소스류	398	1	
참기름	2,280	19		커피조제품	172	1	
들기름	1,915	12		제조담배	703	23	
기타식물성유지	5,000	66		인삼류	70	2	
기타유지가공품	11,238	50		소주	4,500	5	
박류	9,600	1		맥주	5,720	6	
제조담배	1,015	7		물	1,300	1	
식물성환약제	83,570	172		사탕	56	1	
물	25,000	16		비스킷	2,066	8	
				곡류가공품	120,304	177	
				빵	9,370	39	
				면류	26,445	61	
				기타농산가공품	41,625	40	
				견	1,235	30	
축산물	-	-	-	축산물	11,277	56	0
				소시지	1,764	3	
				우유	7,232	50	
				기타낙농품	1,791	2	
				난류	490	1	
임산물	16,206	17	0	임산물	160,351	122	0
합판	16,000	15		합판	94,655	73	
목제장식품상자	8	1		섬유판	4,046	4	
기타임산부산물	182	1		건축용목제품	11,215	27	
				기타목재생활용품	95	-	
				기타목재류	50,280	17	
				수목류	60	-	
수산물	6,271,747	9,461	16	수산물	325,761	261	1
명태	506	2		기타조개	7,485	8	
넙치	450	4		김	26	-	
대구	7,092	26		미역	304,070	149	
기타어류	13,756	32		건조수산물	13,880	103	
새우	123,217	887		기타수산가공품	300	-	
기타게	67796	374					
문어	194839	808					
굴	37970	57					
피조개	91240	261					
기타조개	3891119	4393					
기타연체동물	1393119	1408					
미역	56780	43					
기타수산가공품	214913	909					
기타수산물	178950	259					
합계	7317841	11913	55	합계	2718529	3029	7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2호(2009.2.1~2.28).

표 3. 2009년 3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124,488	2,331	3	농산물	1,629,008	2,042	5
강낭콩	89,500	59		쌀	8,120	17	
참깨	12,126	36		감자	142,201	259	
들깨	5,860	12		밀가루	109,507	33	
기타곡신품	1,200	2		참깨	22,770	29	
마늘	601,490	920		사과	7	-	
고추	120	-		오렌지	38	-	
기타채소	127,250	137		토마토	213	-	
고사리	13,300	82		마늘	673,090	640	
죽순	5,736	5		기타채소	6,687	66	
영지버섯	4,500	16		장미	3,000	6	
표고버섯	31,363	314		기타화초	8,090	26	
기타버섯류	71,629	470		기타견과류	17,680	9	
밤	95,040	107		기타산식물	70,303	211	
호도	4,000	36		대두유	171,953	192	
참기름	2,741	18		사료	131,105	54	
들기름	3,935	13		기타소스류	844	2	
기타유지가공품	5,933	12		커피조제품	4,528	17	
박류	4,400	-		제조담배	1,329	44	
제조담배	435	3		소주	8,340	8	
식물성환약제	27,970	72		맥주	8,170	7	
기타농산가공품	15,960	16		기타주류	115	-	
				정당	16,108	9	
				물	1,506	2	
				비스킷	4,697	8	
				곡류가공품	112,254	152	
				빵	19,970	59	
				면류	47,169	48	
				견	1,860	42	
				기타농산가공품	35,873	38	
				기타천연섬유원료	1,481	64	
축산물	-	-	-	축산물	26,710	147	0
				소시지	336	1	
				우유	3,553	26	
				분유	7,450	93	
				기타낙농품	14,240	24	
				난류	1,131	3	
임산물	7,700	3	0	임산물	192,483	201	0
합판	6,700	2		합판	30,657	45	
기타목재류	1,000	1		섬유판	8,100	7	
				건축용목제품	3,605	11	
				기타목재류	11,044	6	
				수목류	138,127	131	
				기타임산부산물	950	1	
수산물	7,264,359	9,976	15	수산물	392,250	216	1
넙치	50	-		기타조개	5,520	4	
대구	9,956	15		미역	379,102	190	
기타어류	210	1		기타해조류	1,208	13	
새우	74,600	537		기타수산가공품	6,420	9	
기타계	91,705	572					
문어	160,464	338					
굴	18,300	26					
피조개	86,218	251					
기타조개	4,694,318	5,201					
기타연체동물	1,735,206	1,793					
미역	138,899	121					
건조수산물	29,634	254					
기타수산가공품	176,841	728					
기타수산물	47,958	138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3호(2009.3.1~3.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2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소 계	119,583	3,729	5,170,999	126,365	7,214	5,844,918	11,015,917	673,919
2009.01	2,538	229	68,582	2,842	422	44,438	113,020	△24,144
2009.02	2,529	240	59,142	2,921	419	41,720	100,863	△17,422
2009.03	2,801	235	67,733	3,091	405	41,012	108,745	△26,721
소 계	5,067	295	127,724	5,763	513	86,159	322,628	△68,286
총 계	127,451	4,066	5,366,456	135,219	7,766	5,972,088	11,338,545	605,633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1~213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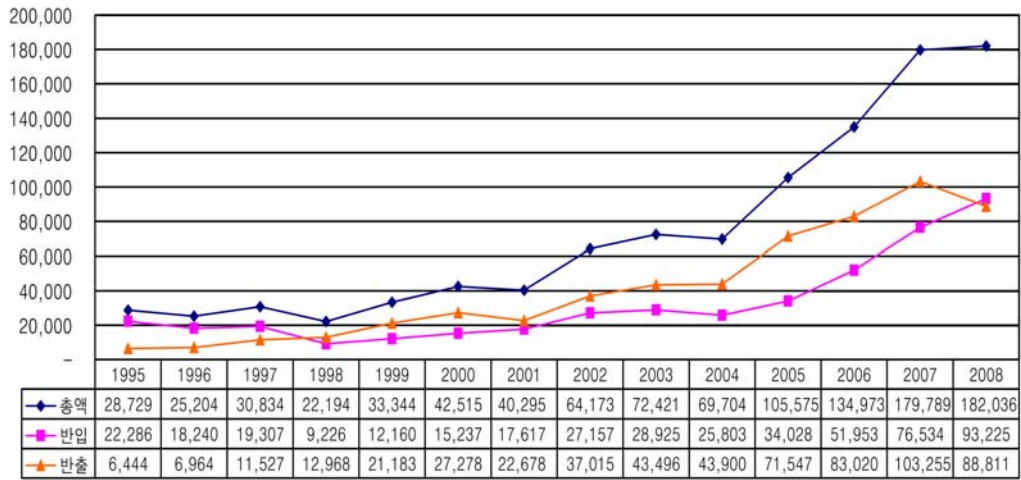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 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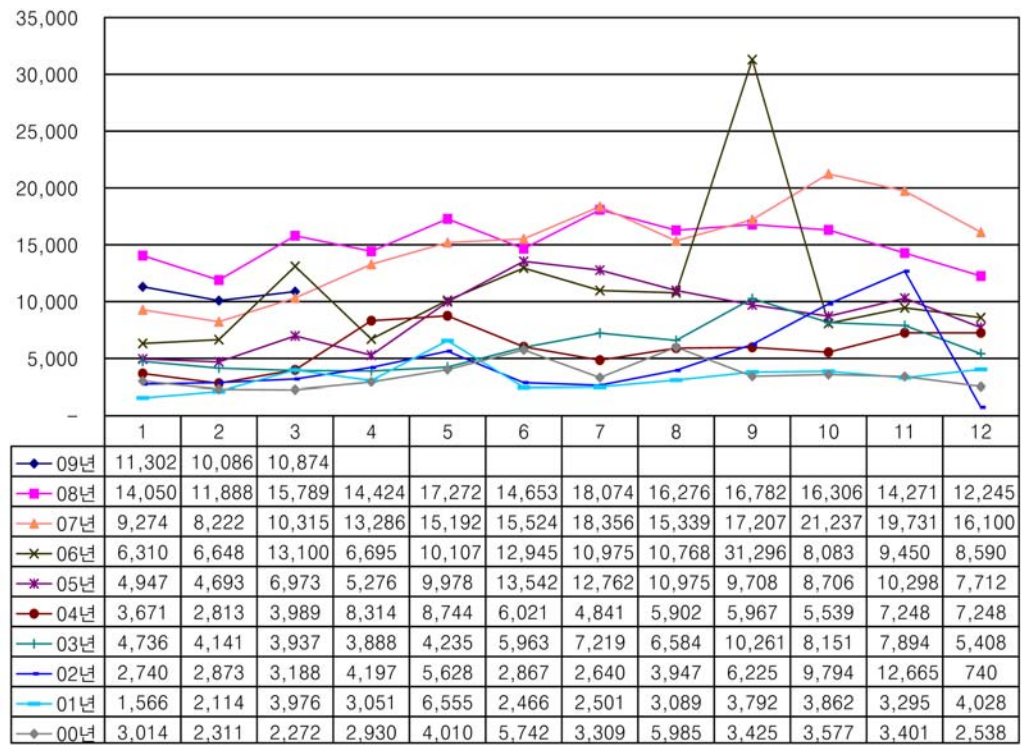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129,675
소 계	439,690	3,302	50,749	805,782	1,299,543	871,176	23,453	27,232	19,670	941,621	2,241,164	△357,922
2009.1	6,661	-	13	13,428	20,102	2,347	87	99	206	2,739	22,841	△17,363
2009.2	2,436	-	17	9,461	11,914	2,690	66	122	261	3,139	15,053	△8,775
2009.3	2,331	-	3	9,976	12,310	2,042	147	201	216	2,606	14,916	△9,704
소 계	11,428	-	33	32,865	44,326	7,079	300	422	683	8,484	52,810	△35,842
총 계	451,118	3,302	50,782	838,647	1,343,869	878,255	23,753	27,654	20,353	950,105	2,293,974	△939,76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211~213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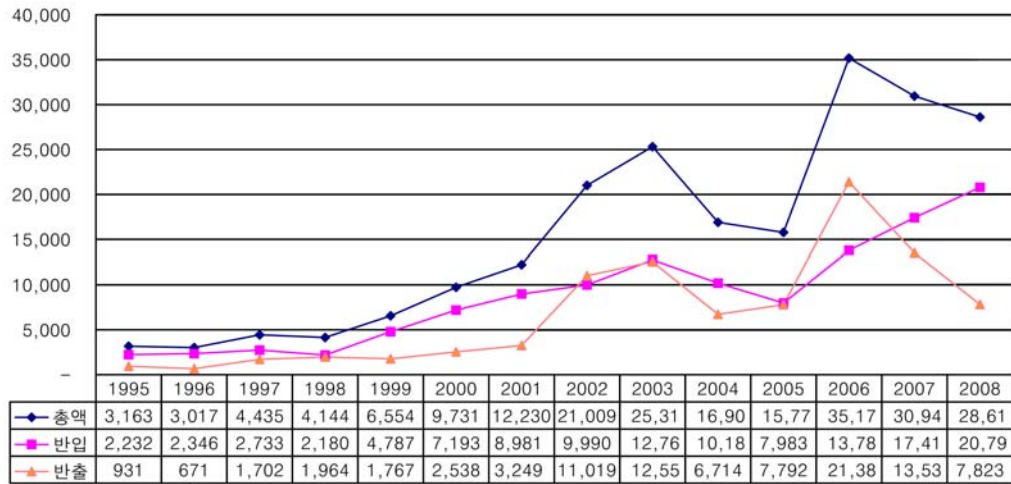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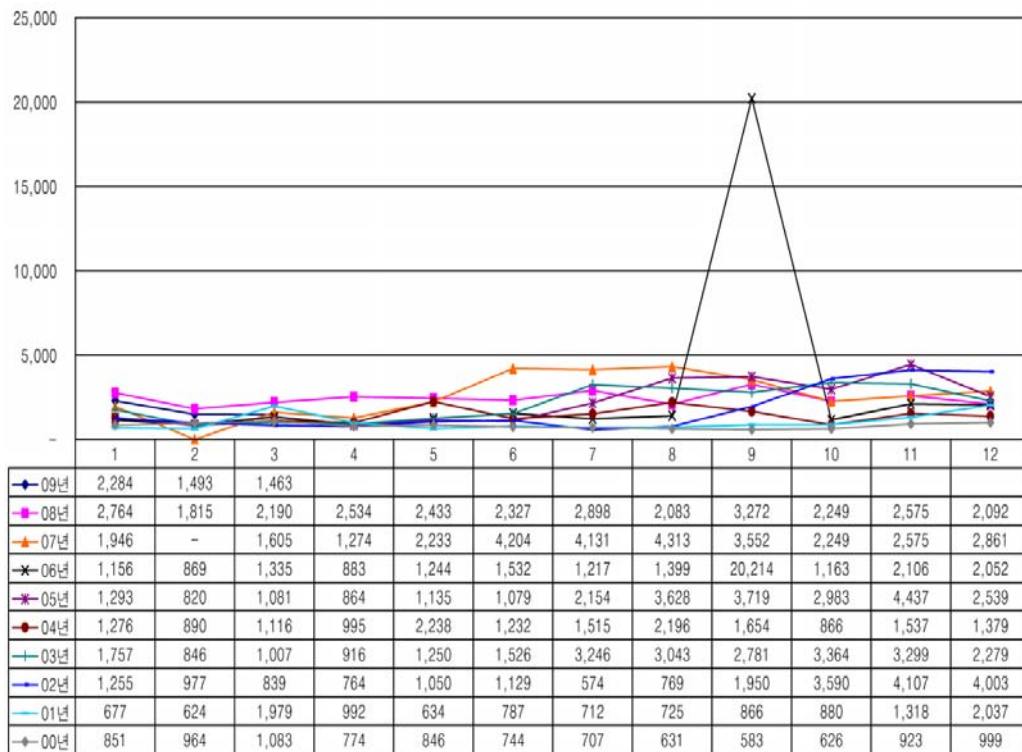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9년 1~3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이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없음. 3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는 총 14개로 전체 386개 기업(단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358건 중 농림수산 분야는 17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8년 12월 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안흥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환신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평양	240만불-	'03.10.31 (*04.3.20)*
(주)안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제품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1,500만불*	'04.2.18 (*08.5.27)*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546천불*	'04.8.21 (*04.8.21)*
(주)제이유네트웍스**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황북 봉산 황남 언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만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황북/황남,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통일고려인삼**	광명성총회사	인삼재배 및 가공공장 운영(북한 내수 및 해외판매)	평양, 황북 봉산군	285만불*	'07.12.31 (*07.12.31)*
대동수산**	광명성총회사	수산물 가공업	남포	500만불*	'08.06.20 (*08.06.20)*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211~213호.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인터넷을 통한 방북안내교육 실시

(통일부, 2009. 1. 29)

- 통일부는 방북 예정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방북 안내교육 과정을 1월 30일(금) 오픈
 - 사이버 방북 안내교육은 기존의 집합교육(통일교육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강)과 병행하여 실시
 - 사이버 방북 안내교육 내용은 필수과정 2과목(약 70분), 지역 1과목 선택(약40분) 및 목적 1과목 선택(약 20분) 등 총 4과목으로 구성되고 수강시간은 2시간 소요
 - 사이버 방북 안내교육 이수자는 기존의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방북 안내교육이 평생 면제

과정별 교육시간

구분	과정내용	시간(분)
필수 과정	방북준비와 우리의 대북정책	25
	방북시 유의사항	45
방북 지역 (4개중 1개 선택)	금강산 지역	42
	개성 지역	30
	평양 지역	37
	신의주, 남포 지역	24
방북 목적 (3개중 1개 선택)	사업	16
	지원 및 행사참가	12
	취업체류	10

주 : 방문사이트 주소는 www.uniedu.go.kr

□ 2009년 북한산 농림수산물 중 한도물량 운영계획 공고
(통일부, 통일부 공고 2009-6호, 2009. 1. 30)

2009년 북한산 농림수산물 중 한도물량 운영 공고(13개 일반품목)

단위 : 톤

HSK코드	품 목	연간 한도	업체 한도	반입제한	비 고
0306-14-3000 0306-24-1010	꽃 게 (냉동·신선)	400	20	7.1~8.31	
0306-14-9000 0306-24-1090	붉은대게 (냉동·신선)	700	50	암컷· 치게	
0306-23-3000	새우·보리새우 (염장·염수장)	600	50		
0307-29-1000	냉동가리비	400	40	11~3월	국내양식 출하시기
0307-41-2000 0307-49-1020	오징어 (냉동·신선)	400	20		
0307-59-1020	냉동낙지	200	20		
0305-30-1000 0305-59-3000	건명태 (북어류)	2,000	20		3월 초순 일괄배정 공고
0709-90-3000	호박	500	20		8월 하순 일괄배정 공고
0712-39-1020	표고버섯	800	20		2월 중순 일괄배정 공고 9월 중순 일괄배정 공고
0802-31-0000 0802-32-0000	호두 (피·탈각)	300	10 (탈각 4)		10월 초순 일괄배정 공고
1207-99-1000	들깨	1,000	20		2월 초순 일괄배정 공고
2008-11-9000	땅콩조제품	1,200	100		농수산물유통공사 인도
2008-19-9000	참깨분	400	50		

주 : 업체별 한도물량은 당해연도 신청 상황 등 제반조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일괄배정 품목은 시기별 별도 공고 예정(상기 공고시기에서 조정 가능)

2009년 북한산 농림수산물 중 한도물량 운영 공고(국영무역품목(4개))

단위 : 톤

HSK코드	품 목	연간 한도	개인 한도	비 고
0713-31-1000 0713-31-9000	녹 두	2,000	400	
0713-32-1000 0713-32-9000	팥	1,000	200	
1201-00-1000 1201-00-9000	대 두	3,000	300	콩나물콩 포함
1207-40-0000	참 깨	300	100	

- 주 1) 인도조건 : 보세구역 내에서 통관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양도
 승인여부 : 매 건별로 한도물량 범위 내에서 품위, 가격 등을 검토 후 결정
 유의사항 : 반입승인 신청 시 계약서에 북한 내 생산지(시·군 단위) 명기
 2) 업체별 한도물량은 당해연도 제반조건의 변화 등에 따라 조정

○ 유의사항

- 반입 신청업체가 배정업체를 초과할 경우 반입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북한측 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수송하는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자와 위탁자는 동일업체여야 하며, 통관 전 양도양수를 불허. 통관 시 위탁자 변경 시는 승인 취소 가능. 과거 이 원칙을 어긴 바 있는 업체 및 위장반입 전력 업체는 선정시 배제될 수 있음.
- 반입승인 후 70% 미만 반입이행 업체는 향후 반입승인 제한 가능
- 당해연도 한도물량 품목은 연내 반입 원칙. 승인 후 계약내용 및 유효기간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제한
- 2008년부터는 일괄배정 품목은 배정업체로 선정된 곳에 한해서만 계약서를 추후 제출

□ 남북 교류협력 동향과 정책추진 방향에 관한 국회 보고
(통일부, 남북관계 동향 보고, 남북관계발전특위 현안 보고자료, 2009. 2. 20)

1. 교류협력 동향

- 남북교류협력은 민간경협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병행
- 2008년 남북교역 규모는 18.2억 달러(전년 대비 1.2% 증가), 인적 왕래는 186,775명(전년 대비 17.3% 증가)으로 증가 추세 지속
 -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북한의 12.1 출입제한조치, 고환율, 국내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2008. 10월부터 교역 등이 감소 추세
 - ※ 2009. 1월 중 남북교역은 약 1.1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
-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적극 추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2009.1.30 공포, 7.31 시행)을 통해 교류협력 절차 간소화
 - ※ 남북협력사업 절차 간소화(협력사업자·협력사업의 2단계 승인 → 협력사업자 승인 폐지), 소액 투자사업의 경우 승인제에서 신고제 전환 등
 - 남북협력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시행
 - ※ 기금집행 승인 절차 강화, 기금지원 단체 모니터링 강화,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 등 집행내역 공개 등
- 개성공단사업도 안정적 성장 지속
 - 남북 당국간 경색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개성공단은 성장세 지속
 - ※ 입주기업 93개(전년 대비 41% 증가), 북한근로자 수 3만 9천명(전년 대비 70% 증가), 생산액 2.5억 달러(전년 대비 35% 증가)
 - 그러나 12.1 출입제한 조치로 원부자재 등 수송 불편, 주문량 감소, 입주 예정기업 시설투자 지연 등 기업활동이 위축
- 정부의 대응 조치
 - 기업의 생산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원부자재 및 제품 수송 차량 우선 통행을 보장하는 「개성공단 출입경 기준」 시행(2009. 1. 1)
 -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

2. 향후 정책추진방향

-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 관계기관 및 유관국과의 협조 하에 최근 북한동향을 면밀히 파악, 상황을 주시
 -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국면을 조성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보장과 통일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
 - 상호 존중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 추구
 -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
- 이러한 입장에 따라 북한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호응을 촉구
 - 대남비난 중단 촉구, 상호 존중과 현실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
 -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

□ 정부, 개성공단 생산제품 ‘공동브랜드’로 지원 (통일부, 2009. 3. 2)

- 통일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Peaceworks」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함.
 - 공동브랜드 Peaceworks(피스웍스)는 “평화를 심는 작업, 평화를 의미하는 작품”이라는 뜻으로 평화와 통일을 상징적으로 표현
 - 이 브랜드는 개성공단내 브랜드 미보유기업 등 독자적인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개발
 - ※ 2008년 초 개성공단 입주기업 65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동브랜드 개발 수요조사 결과, 응답기업 33개사 중 20개 업체가 공동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
- 향후 계획
 - 통일부는 공동브랜드를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개성공단기업협의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우선 공동 활용토록 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
 - 최종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이 브랜드를 희망하는 입주기업들에게 소정의 심사를 거쳐 사용토록 할 계획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 2009. 3. 27)

- 정부는 2009. 3. 2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 이는 2009. 1. 30일 공포된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서,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행정절차 간소화, 교류협력 관리체계 보완 내용을 포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①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시 부여하는 방문기간 : 1년 이내(안 제12조)
- ② 북한주민 접촉신고 면제대상 :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참석시 접촉, 당국간 합의 또는 국제행사에 의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과의 접촉 등(안 제18조)

2. 행정절차 간소화

- ① 남북 직접 왕래자 중 방문기간 내에서 별도의 방문승인 없이 북한왕래가 가능한 자 : 협력사업을 하는 자, 수송장비 승인을 받은 자 등(안 제12조)
- ② 협력사업 신고제 대상 : 개성공업지구 등 특구지역 내에서 총 투자금액이 50만달러 이하인 사업 등(안 제30조)
- ③ 북한방문·북한주민접촉 민원 처리기간 : 10일 → 7일(안 제12조 및 제18조)

3. 교류협력 관리체계 보완

- ① 북한방문·반출입·협력사업 등 승인시의 ‘조건’ 부가사항 명시(안 제12조·제18조·제26조 등)
 - ※ 방문 승인시 조건 : 결과보고서 제출, 방문 안내교육 이수 등
- ② 당국간 합의한 사업 등 위탁가능 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안 제40조)
- ③ 행정조사 절차 : 출석 요구, 서류 검사, 사전 조사계획서 송부 등(안 제42조)

- 동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 31일 동시 시행될 예정

□ 제215차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2009. 4. 3)

○ 4월 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는 'WHO의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안' 등 2건을 심의·의결

① WHO의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 'WHO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억 9,765만원(미화 55,250달러 포함)을 무상 지원

②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 기준일·규모를 변경하고, 자산 운영 방식을 일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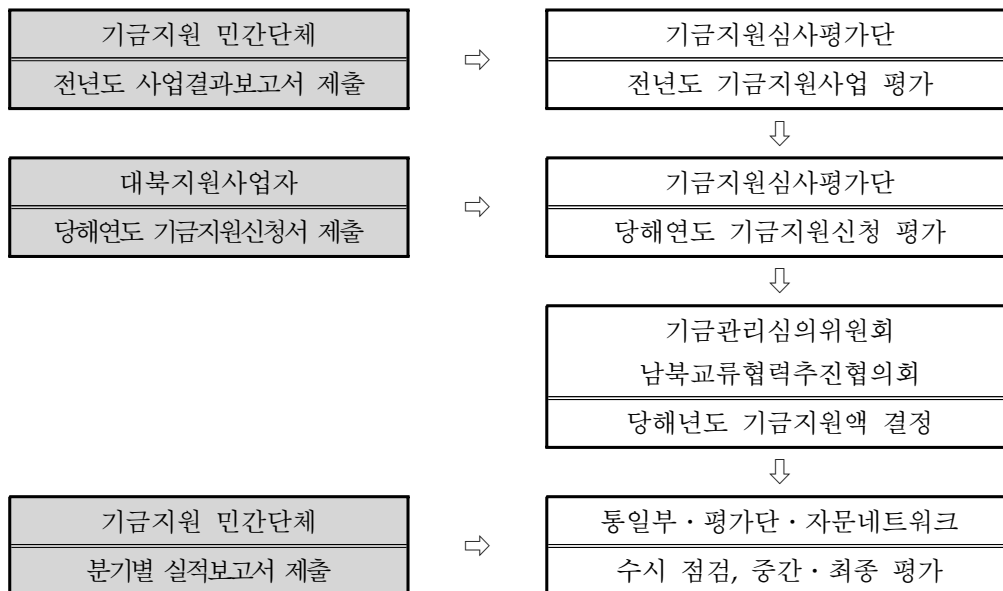
< 자 료 >

2009년도 민간단체 기금지원 심사평가 지침2009. 2. 17
통일부**1. 목 적**

-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위해 객관적인 심사절차 및 기준
확정 · 공고
-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효과 제고

2. 심사평가 및 관리절차

- 사업기간 : 기금지원결정시부터 11월 30일까지
- 12월 10일까지 수출입은행에 정산서류 제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일부 승인을 거쳐 사고이월 가능)

기금지원사업 추진 절차

3. 심사평가기구(기금지원심사평가단)

가. 구 성

- 농업·생활환경, 보건의료·영양개선 2개 분야로 「기금지원심사평가단」 구성
 - 통일부,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북민협」 추천인사 포함) 등 각 15명으로 구성

기금지원심사평가단 구성

분 야	심사평가단
농업·생활환경	통일부(2명),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국가정보원,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축산과학원, 산림과학원, 통일연구원, 민간전문가(3명, 「북민협」 추천 2명 포함), 한국수출입은행
보건의료·영양개선	통일부(2명),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정보원, 보건산업진흥원(2명), 보건사회연구원, 통일연구원, 민간전문가(4명, 「북민협」 추천 2명 포함),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지원심사평가단 운영 절차

심사·평가 지침 수립 (2월초)	사업추진 기본방향, 사업심사 원칙(체크리스트 등 작성), 모니터링 및 평가 연계방안 수립
기금지원 사업 선정 (2~3월)	요건심사(지원대상, 신청자격 등),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평가, 단체역량 심사
수시 모니터링 (연중)	북한 현지 방문, 사업현황·분배투명성 등 확인, 사업자문 등
사업평가(중간/최종) (9월, 12월)	당초 계획 대비 성과 평가, 개선방안 도출, 차년도 사업추진 데이터 축적

나. 주요임무

- 해당 분야의 민간단체 기금지원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 및 평가
 - 사업추진 기본방향, 사업 평가기준 마련
 - 전년도 사업실적·금년도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기금지원 사업 선정

- 당해연도 사업실적 평가(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 ※ 1년 단위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속성 유지
- 사업자문 네트워크(업무위탁기관)와 연계,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사업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추진 실적 점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자문 및 제도개선 권고

다. 사업자문 네트워크

- 농업·생활환경, 보건의료·영양개선 2개 분야로 구성
- 통일부-전문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기금지원심사평가단」-위탁기관간 협조, 민간단체 지원
 - 당해연도 분야별 평가지침 수립 지원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효과평가서 등 주요서식 표준화
 - 민간단체가 요청하는 기술자문 수시 제공(분기별 자문협의 등)
 - 표준 사업절차 개발 및 지원물자 표준화 방안 등 마련
 - ※ 농업·생활환경 분야(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보건의료·영양개선 분야(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심사평가 기준

가. 요건심사

① 기금지원 대상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의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비
 - 대북지원사업자로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② 지원요건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의 “기금지원사업”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업

기금지원사업 요건

1.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주 : 대북지원사업(『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구체적으로 다음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북한측과 사업협의창구 미개설 단체(초청장 발급여부, 방북승인기준)
- 북한측과 당해사업에 대한 합의서 미체결 단체(접수마감시까지)
- 전년도 기금집행율(집행액/승인액) 40% 이하 단체(접수마감시까지)
- 합동점검 등에서 단체 사업역량 미달로 평가된 단체

○ 2009예산 의결시 국회 부대의견 및 재정부 기금집행지침 준수

- 불법·폭력 시위 주최 및 주도, 참여단체는 기금 지원 제한

나. 지원규모 심사

① 기본방향

○ 지원 시급성이 큰 사업 우선 지원(『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처리 규정』 의거)

- 개별사업의 경우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동 규정 제8조 제5항)
 - ※ 농업·생활환경 분야, 보건의료·영양개선 2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한정·신청
- 개별사업 기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컨소시엄 방식 기금 신청도 가능(동 규정 제8조 제5항 단서)

기금지원사업 요건

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
2.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
3.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
4.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5. 북한의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관련 대북지원사업
6. 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② 평가방법 및 지원규모 산정 개요

- 2개 분야(농업·생활환경/보건의료·영양개선)로 나누어 채점
 -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 평가 25점, 2008년도 집행·회계 평가 10점(수출입은행 평가),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 65점 배점
 - ※ 각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배점비율을 반영하여 종합점수 산정 (전년도 기금 미지원 단체는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만 평가)
 - ※ 채점시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 채점 결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 ※ 분야별 지원규모 차이는 최대 6:4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
- ‘지원가능액’ 산정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라 연 1회에 한해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 ※ 다른 국가행정기관,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 사업비에서 제외
 - 다만, 1개 단체 신청 사업은 최대 7억원, 2개 단체 이상 신청 사업은 최대 15억원 이내로 제한
 - 지원가능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여부 별도 판단
 - 전체 사업비 중 단체의 자체재원 규모는 전년도 자체재원을 통한 지원 실적을 기준
 - ※ 신규 지원신청 단체의 경우 해당분야의 통일부 반출승인액 기준, 전년도 기금 지원 실적이 있는 단체는 2월말 기준 수출입은행을 통해 인정받은 금액
 -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있을 경우 이월사유를 검토하여, 민간단체의 사업추진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이월액만큼 제외
 -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자금의 용도

1.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 (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3. 대북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 (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 ※ 2호 및 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8% 범위내에서 결정(동 규정 제9조 제2항)

- 최종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규모는 채점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확정
 - 정부의 국정목표, 대북정책 중점 과제, 남북관계 파급영향, 대북지원 사업의 다양성 유지 등 정책적 측면 고려

③ 2008년도 기금사업 평가기준

- 사업추진실적 평가는 사업집행(20), 모니터링(30), 사업실적(40), 단체역량(10) 등에 대하여 평가

④ 기금집행·회계 평가기준(수출입은행 평가)

- 기금집행·회계 평가는 사고이월 등을 감안하여 1월말 기준으로 자체재원 집행(40), 집행기준 준수(30), 회계장부 준수(10), 증빙제출 적정(20) 등에 대하여 평가

⑤ 2009년 사업추진계획 평가기준

- 사업추진계획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20), 사업계획의 적정성(35), 모니터링 계획의 적합성(25), 평가의 적절성 및 환류방안(10), 단체역량(5) 등에 대하여 평가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해당할 경우 기금지원 배제

기금지원 배제 유형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4.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 |
|--|

6. 심사평가 일정

- 2008년도 기금사업집행 결과보고서 접수 : 1월말
- 2009년도 민간단체 개별사업 기금지원 신청서 접수 : 2.17 ~ 3.5
 - 2008년도 기금사업 추진실적 평가 병행(분야별 서면·대면심사 병행)
 - ※ 민간단체 사업성과 설명회 개최(보건·영양 2. 23, 농업·생활환경 2. 24)

- 2009년도 사업계획서 평가 : 3.9 ~ 3.20
 - 분야별 서면·대면심사 병행

- 종합평가 및 결과통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상정·의결 : 3월 ~ 4월
 - 통일부 종합평가표 작성 ⇒ 개별단체 결과통지 ⇒ 관계부처 협의 ⇒ 국회(외통위) 사전보고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 ※ 상기 일정은 사업평가, 관계부처 협의, 국회보고 과정에서 변경 가능

<붙임 1>

2008년도 대북지원단체 사업추진성과 심사표

o 단체명 :

o 사업명 :

단 계	심 사 내 용	배점	평가	비고
1. 사업집행 (20점)	o 사업계획서와 사업집행의 연계 - 추진 일정 등 사업계획과 집행간의 일관성 - 계획된 지원물품의 반출 여부	10		
	o 처리규정·정부방침 준수 여부 및 자립도 - 법규 및 반출·방북시 행정적 절차 준수 등 - 기부자·후원자의 참여도 및 독립성(기금 의존도 등)	10		통일부 평가
2. 모니터링 (30점)	o 정확한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노력도 - 계획서 상의 일정 대비/현장방문 실적 - 북측의 자료, 사진, 영상자료 등 확보 실적 - 인도인수증 및 분배내역서 등 증빙서류 구비 여부 - 북측 수혜자 및 사업 책임자와의 면담 자료 제출	12		
	o 모니터링의 적정성 - 모니터링 방식의 적절성 및 수행자의 전문성 - 방북결과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 모니터링 결과의 사업내용 반영도	15		
	o 정부추천인사 모니터링 성사여부(성사시 3점)	3		통일부 평가
3. 사업실적 (40점)	o 사업계획 대비 평가결과 - 계획수립→집행→모니터링 과정 종합평가(5점) - 계획서 상 평가지표의 적절성(5점) 및 달성도(5점)	15		
	o 사업의 집행성과 및 효과 - 사업시행 전후 비교(객관적 자료에 의한 정량평가) - 사업추진에 따른 파급효과(정성평가)	15		
	o 사업추진 결과의 향후 발전 가능성 - 북한의 자생력 증진 및 발전적 변화 촉진 - 지원 효과의 국민적 동의 및 지속가능성 - 사업성과의 대북정책 추진 기여도	10		
4. 단체역량 (10점)	o 타 단체의 모범적 사례 o 자료제출의 충실성 - 내용의 충실도·정확도, 기한준수 여부 등	10		통일부 평가
총 점 (100점)		100		
총 평	※ 기금집행실적 평가에 대한 종합검토의견 및 향후 부과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			

평가자(소속) : 성명 : (인)

평가자(소속) : _____ 성명 : _____ (인)

<붙임 3>

대북지원단체 사업추진계획 심사표

o 단체명 :

o 사업명 :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평 가
1.사업의 타당성 (20점)	o 사업의 필요성 - 인도적 목적 부합 여부 - 북한내 상황의 심각성 정도 - 정부 정책과의 부합수준	10	
	o 복측의 수용성 - 복측측 상대방의 역량 및 전문성 - 합의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북한당국의 협조가능성	10	
2.사업계획의 적정성 (35점)	o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 타당성 - 전체사업기간 설정의 적절성 - 사업목표 설정의 합리성, 측정가능성 - 구체적 사업결과 산출의 명확성	7.5	
	o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 전문가 검토 등 사업계획 검토의 적절성 - 사업효과 대비 지원규모의 적정성 - 수혜대상 및 지원물자의 적절성	7.5	
	o 사업계획, 지원방법 및 품목의 적정성 - 사업추진 일정의 준수가능성 - 사업추진 방법의 현실성 -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단가, 수량 등)	7.5	
	o 수혜대상에 대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 수혜대상자의 구체성 - 수혜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배분 방안	7.5	
	o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 평양지역 1, 지방대도시 3, 소도시·군지역 5	5	
3.모니터링 계획의 적합성(25점)	o 복측과의 구체적 합의 여부 - 모니터링 대상 지역 개방 수준 - 복측 관계자, 주민과의 접촉 범위 -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편의 제공에 대한 합의의 구체성	10	
	o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 모니터링 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 -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진행 및 성과 측정 가능성 - 모니터링 지표의 적절성 및 정확도 확보방안	15	
4.평가의 적절성 및 환류방안 (10점)	o 평가의 구체성 - 평가기준 및 지표의 적정성 - 목표량 설정의 적정성	5	
	o 평가결과의 활용가능성 - 차년도 사업추진시 활용방안(당해연도 종료 사업은 3점부여)	5	
5.단체역량 (10점)	o 서류제출목록 준수여부 - 점검표 확인, 서류상 오류 발견	2	통일부 평가
	o 단체별 사업추진 역량 - 회계 1명, 대북사업담당 2명이상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현황 - 사업지속 가능 능력 등	8	통일부 평가
총 점 (100점)		100	
총 평	※ 기금지원 불가 사업내용, 종합 검토의견, 부과조건, 향후 개선방향 등은 별지에 상세하게 기재		

평가자(소속) :

성명 :

(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¹⁾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9.4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06.1~'12 ²⁾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07.1~'12 ³⁾	-	9,966	-	한국 2,437, 유엔긴급지원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긴급지원자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09.1~4	-	1,661	-	유엔긴급지원자금 1,000, 캐나다 330, 호주 261, 스위스 70
총 계	-	173,780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3) 긴급수해복구 지원도 포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09)

표 2. 2009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4.30)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FAO	유엔긴급기금	1,150,001	여름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호주적십자사	호주	521,921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UNICEF	유엔긴급기금	1,101,300	5개도에 대한 어린이 질병예방 (CERF 09-CEF-015)
	호주	695,894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소계 1,797,194	
UNPF	유엔긴급기금	154,883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WFP	유엔긴급기금	6,493,725	홍수피해, 식품 및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CERF 09-WFP-018)
	호주	1,391,788	긴급 식량지원
	캐나다	3,301,127	식량지원(M-012909)
	스위스	703,789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소계 11,890,429	
WHO	유엔긴급기금	1,100,000	모자 보건 개선(CERF 09-WHO-014)
합 계		16,614,428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09)

표 3. 2009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4.30)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유엔긴급기금	FAO	1,150,001	여름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식량	유엔긴급기금	WFP	6,493,725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CERF 09-WFP-018)
	호주	WFP	1,391,788	긴급 식량지원
	캐나다	WFP	3,301,127	식량지원(M-012909)
	스위스	WFP	703,789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소계 11,890,429	
보건	유엔긴급기금	UNPF	154,883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유엔긴급기금	WHO	1,100,000	모자 보건 개선(CERF 09-WHO-014)
	호주	UNICEF	1,101,300	5개도에 대한 어린이 질병예방 (CERF 09-CEF-015)
			소계 2,356,183	
식수 위생	호주	적십자	521,921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호주	UNICEF	695,894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소계 1,217,815	
합 계			16,614,428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09)

표 4. 2009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09.1.1~4.30)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호주	WFP	1,391,788	긴급식량지원
	적십자	521,921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UNICEF	695,894	식수 및 위생 품목 긴급지원
		소계 2,609,603	
캐나다	WFP	3,301,127	식량지원(M-012909)
유엔긴급기금	FAO	1,150,001	여름 작물 생산을 위한 긴급지원 (CERF 09-FAO-009)
	UNICEF	1,101,300	5개도에 대한 어린이 질병예방 (CERF 09-CEF-015)
	UNPF	154,883	산모 사망률 경감을 위한 긴급지원
	WFP	6,493,725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WHO	1,100,000	모자 보건 개선(CERF 09-WHO-014)
		소계 9,999,909	
스위스	WFP	703,789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합 계		16,614,428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09)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북한 올해 외부 식량 179만 톤 도입 필요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올 10월까지 총 178만 6천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형편이라고 밝힘.
- 2월 20일 FAO가 발간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는 지난 2년간 북한의 곡물 수확이 급격히 줄어 심각한 식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FAO는 올해 양곡연도(2008. 11~2009. 10)에 북한이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178만 6천톤의 식량 가운데 1월 중순 현재 45만 톤을 지원받았다며 앞으로 134만 톤을 추가로 지원받거나 상업적 거래를 통해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쉐팡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지난해 양곡연도에 총 77만톤의 곡물을 수입한 만큼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곡물을 수입한다 해도 외부에서 57만톤의 곡물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추산함.
- 통일부는 2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는 548만 톤인데 비해 전년도 식량 생산량은 431만 톤(정곡 기준)이어서 외부의 지원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량이 117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올해 외부 식량 179만t 도입 필요,” 2009. 2. 20)

□ WFP 대북지원 비축식량 고갈 위기

-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등 가장 취약한 계층 2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량배급마저 내달이면 비축식량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 미국, 일본 등에 긴급지원을 호소함.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WFP의 제니퍼 파멜리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620만 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지원 식량과 자금의 부족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2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가 한 달 뒤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힘.

- 2월 23일 현재 비축된 식량도 다음 달이면 바닥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긴급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WFP는 앞으로 수주 이내에 식량배급 국제요원들을 다른 나라로 재배치하고 현장사무소를 폐쇄하는 한편 차량과 통신을 비롯한 장비들을 처분해야 할 형편이라고 함.
- 매년 3월부터 햅쌀이 나오기 전 여름까지가 북한 주민에게는 가장 버티기 힘든 시기이므로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호소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대북지원 비축식량 고갈 위기,” 2009. 2. 24)

□ 북한 문제의 핵심은 식량난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이면의 중심에는 식량난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주장함.
- 이 신문은 김정일 정권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동시에 외국을 향해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외부에 손을 벌리면서도 핵으로 무장한 채 미사일을 휘두르는 세계 최초의 국가라고 평가함.
- 신문은 지난해 발표된 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 주민은 섭취할 영양분의 절반 이상을 시장에서 얻고 있으며 가게 소득의 80%를 시장 활동을 통해 얻고 있다고 주장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북한 문제 핵심은 식량난,” 2009. 3. 6)

□ WFP, 지원식량 없어 북한 사무소 폐쇄 중

- 세계식량계획(WFP)은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지원용 식량을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북한 내 식량분배 감시요원의 수를 줄이고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함.
- WFP는 3월 9일 성명에서 지나 몇 개월간 외부 지원이 줄어들어 현재 계획된 지원 사업의 15%만 수행 중이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사업을 축소해야 할 형편이라고 밝힌 바 있음.
- WFP, 아시아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 정부의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대규모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WFP의 북한내 사업 규모는 미

- 국 정부의 기부액과 지원식량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함.
- WFP는 지금까지 예산안 5억 400만 달러의 4.5%인 2,270만 달러를 확보하였음.
- 계획된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주 800만 달러가 소요됨.
- 미국 정부는 민간단체(NGO)를 통해 지난 1월 말 북한에 7차 선적분 식량을 전달한 이후 아직 8차 선적분 식량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지원식량 없어 北 사무소 폐쇄 중,” 2009. 3. 10)
<http://www.reliefweb.int> (WFP, WFP does what little it can for North Korea, Mar. 5, 2009)

□ 북한 주민 870만 명이 식량불안정 상태

-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비딧 문타폰은 지난해 북한 지역의 날씨가 비교적 좋았음에도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비료 및 연료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이 때문에 870만 가량이 북한 주민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함.
- WFP는 잇따른 흉작으로 북한 인구의 40%가 넘는 870만 명이 몇 달 내 식량원조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고 평가함.
- WFP는 2008년 9월 세계 각국에 북한 지원을 위한 5억 4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원조를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목표량의 11%밖에 확보하지 못함. 이는 18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으로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돕기에는 부족함.
- WFP의 사벨리 대변인은 지금까지 거둬들인 식량은 대부분 노약자와 어린이, 임신부, 병원에 분배하였지만 필요한 양의 15% 정도만 채울 수 있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문타폰 북한 870만명 식량불안정 상태,” 2009. 3. 20)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주민 수백만명, 기아로 고통<유엔>,” 2009. 4. 5)

□ WFP 대북 지원 상황 보고서

- 세계식량계획은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 동안 홍수 피해, 식량 및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통 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MOP 10757.0)

- 긴급지원사업은 북한 주민 560만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및 어머니 영양개선, 초등학생, 노인, 취약계층 급식, 부락활동을 위한 식량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09년 8월까지 1억 3,00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이 소요되며 만일 추가적인 모금이 어려울 경우 400만 명의 수혜자가 영향을 받게 됨.

○ 향후 6개월 간 지원에 필요한 식품 소요량

- 곡물 158,659톤
- 두류 20,404톤
- 혼합식품 6,864톤
- 유지류 5,035톤
- 기타(설탕 및 분유) 1,090톤

○ 소요 재원

- 총사업비 : 5억 360만 달러(가용재원 5,750만 달러, 부족재원 4억 4,620만 달러)
- 2009년 : 3억 6,820만 달러(가용재원 3,170만 달러, 부족재원 3억 3,650만 달러)

○ EMOP(긴급지원사업) 사업 계획(2008.9.1~2009.11.30)

- 수혜자수 : 5,577,200명
- 지원량 : 460,386톤
- 지원액 : 3억 6,823만 달러

자료: WFP, Operations and Resourcing Update, April 2009.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북민협, 대북 지원 행동규범 서명

- 대북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북민협은 민간단체들이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분배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대북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규범을 공식 결의함.
- 대북 지원 56개 민간단체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며 남한 정부는 북한에 쌀, 비료 등 인도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은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

고 정부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함.

- 북민협은 1999년 4월 20여개의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결성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임기 1년의 회장에는 정정섭 국제기아대책기구 대표, 총무는 국제기아대책기구의 권용찬 사무총장이 지난해에 이어 연임함.
- 북민협은 2008년 6월 대북 지원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피하고 재원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민협 공동규범’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 자리에서 북민협 단체장들이 이 규범에 서명함.

○ 북민협 공동규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2조는 ‘대북 지원의 원칙’에 인조적 명령 우선을 제시하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대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제10조는 북민협 단체의 행동규범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조항으로 각 단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규범 이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행동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단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규정함. 만일 해당 단체가 북민협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북민협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제명토록 함.

○ 북민협 소속 단체장들은 1월 말에 중국 선양에서 북측 민화협 관계자와 만나 단체별 2009년 대북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주민에 물자 전단여부 점검,” 2009. 1. 20)

□ 북한, 식량난 해결책으로 재배어업 강조

○ 북한 당국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산 양식을 강조함.

- 2009년 1월 17일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잡기만 하던 어업활동으로 수산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으므로 땅에서처럼 인공적으로 씨를 뿌려 길러서 잡는 재배어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서는 어업선진국들처럼 인공어초 건설, 새끼 수산 동물 방류 등 자원의 보호증식기술을 발전시켜야 함.

○ 북한은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수산부문에서 수산물 생산과 재배어업,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식량난 해결책으로 재배어업 강조,” 2009. 1. 29)

□ 한국 정부 , WFP 통한 식량지원 대폭 확대

- 한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식량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
- 오 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식량안보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향후 3년간 WFP 등 국제식량기구를 통해 2,5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여기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되는 대북 식량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 3년간 7,500만 달러를 농업생산기반 조성, 영농기술 전수, 농산물의 시장접근성 제고 등 개발도상국의 식량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사업에 지원할 계획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정부, WFP통한 식량지원 대폭 확대,” 2009. 1. 29)

□ 양산시 의회,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발의

- 경남 양산시의회는 남북교류협력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발의함.
-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경남지역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는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며 각종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함.
- 조례안에 의하면 양산시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만들어 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문화, 학술, 경제, 체육분야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2월 9일 개최되는 제10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종 대북지원과 시 차원의 농업기술 이전, 문화교류 등 민간교류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양산시 의회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발의,” 2009. 1. 30)

□ 2009년 들어 북한 쌀값 하락

-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만드는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

북한통신'에 의하면 최근 북한의 쌀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다고 밝힘.

- 소식지에 의하면 평양시와 평성, 남포, 신의주, 혜산, 청진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식량 가격이 지난 1월 중순 이후 kg당 평균 300~400원 하락하였으며 중국 위안화 대비 북한의 환율이 10~20% 가량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 하락율은 더욱 크다고 분석함.
- 1월 말 쌀 1kg당 가격은 평양 1,700~1,800원, 평성·순천 1,700원, 신의주 1,660원, 혜산 1,800원, 청진 1,800~1,900원 정도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쌀값 최근 크게 하락,” 2009. 2. 2)

□ 민간단체들, 북한 민화협과 지원사업 협의

- 민간 대북 지원단체 56개의 연합체인 북민협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민화협 관계자들과 만나 2009년 대북 농업분야 협력사업과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함.
- 북민협의 권용찬 총무는 북민협과 민화협이 만나 대북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2008년 지원이 중단됐던 못자리용 비닐박막의 지원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힘.
- 굿네이버스, 나눔인터내셔널 등 북민협의 20여개 회원단체들도 2월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개별적으로 북한의 민화협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단체별 금년도 대북사업 계획을 협의하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민간단체들, 北민화협과 지원사업 협의,” 2009. 2. 3)

□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7차분 남포항 도착

-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50만 톤 중 7차 선적분 4,940톤이 최근 남포항에 도착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함.
- 이번 선적분은 당초 2월 19일 경 남포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악천후로 인해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다롄(大連)항에서 대기 중이었음.
- 이번 식량은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그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미국의 5개 민간단체가 평안북도와 자강도 25개 군을 대상으로 분배할 예정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 대북지원식량 7차분 남포항 도착,” 2009. 2. 4)

□ 중국, 대북 무상원조 공식 확인

- 중국이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기로 하였음을 공식 확인함.
 -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수년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에 무상원조를 계속해왔다고 밝힘.
 - 이는 북한 인민들이 경제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하면서도 무상원조의 성격이나 품목, 제공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월 4일 중국 정부가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기로 최근 결정하였음을 보도함.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월 21~24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한 뒤 이같은 발표가 나온 것임에 주목하고 왕 부장이 이번 방문시 식량지원을 선물로 내놓았다는 설이 나돌고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 (AFP, NKorea plan to ban hillside farms will increase hunger: aid group, Nov. 10, 2008)

□ 북한 주민, 식량지원 사실 제대로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는 2008년 11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외부의 식량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함.
 - 설문조사 대상 탈북자의 71%는 북한에서 기아에 시달린 적이 있으며 33%는 자신들의 가족 구성원이 굶주림 끝에 사망한 적이 있다고 대답함.
 - 탈북자들이 정착을 희망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순이었다고 조사되었으며 만일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만 부여한다면 중국에 잔류하려는 탈북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주민 식량지원 사실 제대로 몰라,” 2009. 2. 6)

□ 작년 풍작 불구 북한 식량문제 계속될 듯

- 북한은 작년 최근 몇 년 이래 최대의 풍작을 이루었지만 금년 식량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식량부족으로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은 작년 식량생산량이 늘긴 했지만

우선적으로 군량미 재비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용식량이 많지 않아 주민들의 식량부족 고통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함.

- 2008/2009 양곡연도의 북한 식량생산량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343만 톤, 미국농무부는 311만톤,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431만 톤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수입 규모가 20만 톤, 외부 식량지원분이 20~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으로 가용 식량공급량은 380~500만 톤으로 추정됨.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과 UC샌디에고의 스페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 주민의 최소식량요구량은 식용 315만 톤, 사료용 등을 포함한 전체 최소식량요구량은 434만 톤으로 추정되어 올해 북한의 식량 공급량은 최소 요구량을 약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함.
- 하지만 두 전문가는 지난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재고 식량이 바닥이 났고, 올해 잉여생산을 작년에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방출한 군량미를 우선 채우는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여기에서 북한의 식량 분배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지역간, 사회계층간 식량배급 격차가 크고 외부의 식량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북한의 식량 구매능력도 크게 떨어져 식량문제는 계속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작년 풍작 불구, 北식량문제 계속될 듯,” 2009. 2. 6)

□ 남북 관계 긴장속 민간단체 대북지원 잔걱음

- 남북 당국간 접촉이 단절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은 기존 사업을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활발한 교류를 통해 북측과 신규사업에 대해 협의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음.
- 북민협 소속 20여 개 단체는 지난 2월 1일부터 8일까지 순차적으로 중국 선양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과 만나 올해 개별사업계획을 다양하게 논의함.
-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전강석 회장은 올해 평양 삼석국영농장을 지원해 사과나무를 새로 심고 배 농장도 새로 조성하며 200평 규모의 온실도 10개동 지어줄 것이라고 밝혔으며 평양 낙랑구역에 짓고 있는 콩우유 공장의 완공에 대해서도 민화협과 논의하였다고 밝힘.

- 한편 남북나눔운동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못자리용 비닐 지원에 정식 합의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남북 긴장속 민간단체 대북지원 ‘잔걸음,’” 2009. 2. 8)

□ 부산물비료 지원시 남북에 윈-윈

- 바다에 투기되는 막대한 양의 가축분뇨를 처리한 부산물비료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북한 농경지의 지력을 높여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남한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남북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음.
- 2월 13일 월드비전 북한농업연구소가 ‘월드비전 북한농업협력 사업 향후 1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이용범 교수가 이같이 제안함.
- 북한은 부족한 화학비료를 대신하기 위하여 각종 유기물을 이용한 비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농업 부산물이 농경지로 환원되지 않고 있어 농경지에 유기물이 부족한 상태임.
- 반면 남한에서는 각종 산업에서 다양한 유기성 부산물이 생산되며 특히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지만 현재는 많은 양의 가축분뇨가 동해 등에 투기되고 있음.
- 따라서 가축분뇨 등 부산물을 처리하여 유기질비료로 만들어 북한에 제공하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부산물비료 지원시 남북에 윈-윈,” 2009. 2. 13)

□ 정부, 민간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절차 개시

- 통일부는 2월 17일부터 국내 민간단체의 올해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힘.
- 통일부는 2월 17일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개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공고하고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을 받은 81개 단체에 대해

서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임.

- 정부는 3월 5일까지 단체들로부터 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3월말 또는 4월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안을 의결할 예정임.

-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개별사업과 단체들 간의 합동사업에 총 18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예정임.
- 정부는 지난해 37개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개별사업에 102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정부, 민간대북지원단체 지원절차 개시,” 2009. 2. 16)

□ 신품종 양파 북한재배 투자 사기범에 집행유예

-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은배)는 2월 17일 사기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파종묘업자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국동포 사업가 B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함.
- 이들은 북한에서 겨울철에도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양파를 개발했다고 속여 대북지원민간단체와 재력가 등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10억 여 원을 받아 가로챘 사기협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임.
- 이들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3회에 걸쳐 한국산 양파와 중국 재래종 양파를 교잡해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6월에 수확하는 고정종 추파를 개발 ‘탠신황’이라고 명명하였음.
- 이들은 2001년 탠신황을 북한지역에 시험재배하였지만 봄가뭄으로 실패하여 종자 생산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2004년 7월 남한의 한 대북지원민간단체와 재력가 1명을 끌어들여 생산성이 높은 교배종 양파를 개발하였다고 속이고 모두 10억 원 가량을 투자받아 가로챘.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신품종 양파 북한재배 투자사기범에 집행유예,” 2009. 2. 17)

□ 미국 민간단체들 대북 지원 계속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 민간단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 의료,

식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함.

- 월드비전은 황해북도 연탄군 도치리에 설치한 태양열발전기 사업 대상을 칠봉리 등 인근 마을로 확대하였으며 평안남도 안주와 개천에 있는 라면 공장과 두유 제조공장에 올해 첫 지원분 밀가루를 보냄.
- 빅터 슈 월드비전 북한사업국장은 2월 초 평안남도 안주와 개천, 황해북도 연탄 등을 방문하여 지난해 지원한 물품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북한 당국자와 향후 사업계획을 논의함.
- 15년째 대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아메리카 케어즈는 올해 2,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보건의료 교육을 위해 의료용 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지난해 3개 민간단체와 함께 강원도 인민병원, 강원도 소아병원 등 북한 병원 3곳에 발전기를 설치한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는 이들 병원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민간단체들 대북 지원 계속” 2009. 2. 18.)

□ 북한 전체 면적의 35%가 홍수재배 취약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명수정 박사는 북한 면적의 35%가 홍수 취약지라고 분석함.
- 명수정 박사는 북한의 토지이용, 강우, 지형, 토양, 과거 재배이력, 사회상황 등 7개 범주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북한 지역의 재해 취약도를 안정, 다소 안정, 보통, 다소 취약, 취약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다소 취약하거나 취약한 면적 비율이 각각 22.76%, 12.33%로 전체 면적의 35.09%에 달함.
- 양강도와 함경북도는 홍수 취약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이 전혀 없었던 반면 강원도, 남포, 개성, 평양, 황해남북도 등지는 안정 등급이 전혀 없어 대조를 이룸.
- 홍수 피해 취약지역은 전반적으로 산림훼손이 일어난 곳과 거의 일치함.
- 유엔은 2007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국제 기후 위험지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06년 자연재해 위험이 세계 2위이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회적 역량을 확충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를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사지에 밭을 만들고 땀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생태계를 훼손함으로써 재해 완충능력이 떨어져 해마다 홍수를 입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북한 면적 35%가 홍수재해 취약지” 2009. 3. 3)

□ 북한 식량난에 두루미도 떠나

- 미국 위스콘신에 본부를 둔 ‘국제두루미재단’의 조지 아치볼드 이사장은 북한의 식량난 여파로 북한 안변에서 겨울을 나던 두루미가 이제는 한 마리도 월동을 위해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함.
- 아치볼드 이사장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두루미들은 원래 3월 쯤 안변에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동했다가 11월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곤 했지만 이제는 한 마리도 월동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로 북한의 식량난을 들고 있음.
- 이 때문에 두루미들은 이제 먹이가 있는 남쪽 철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생태학자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철원 지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가 300마리에서 800마리로 늘어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식량난에 두루미도 떠나, 2009. 3. 13)

□ 북한 연말연초 대중 비료수입 40배 증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 중단에 대비하여 지난 연말부터 올 1월 말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중국으로부터 화학비료를 40배나 많이 수입함.
- 북한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25,608톤에 달하여 1년 전 같은 기간의 635톤에 비해 40배나 많은 양임.
- 북한의 화학비료 수입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올해도 남한 정부의 대북 비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곡물 생산은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는 시장의 곡물 가격에 미리 반영되어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2008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2,694톤의 곡물을 수입하여 전전 같은 기간의 108,109톤에 비해 현저히 감소함.
- 전년도에는 중국의 곡물 수출 제한 조치에 대비하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미리 수입을 늘렸으나 올해는 비료가 더 급한 실정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연말연초 대중 비료수입 40배 급증,” 2009. 3. 13)

□ 북한의 위성발사, 대북지원 위축 우려

-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인도주의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미국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대외 정치 상황과 인도주의 지원이 무관하다고 하면서도 1990년대 이래 대북 식량 지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국제기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어든 마당에 북한 당국의 군사적 위협 행동으로 인해 대북 인도지원이 중단되거나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이 입게 된다고 우려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위성발사, 대북지원 위축 우려,” 2009. 3. 14)

□ 미국,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에 실망

-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돌연 거부 의사를 밝혀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의중을 탐색하면서 일단 실망감을 표시함.
-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월 17일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통보해왔음을 확인하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함.
-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12개월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40만 톤, 머시코 등 5개 민간단체(NGO)를 통해 10만 톤 등 총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키로 하고 계획대로 지원 약속을 이행해오고 있었던 상황임.
- 미국은 지금까지 169,000톤을 전달했고 가장 최근에 식량을 전달한 것은 지난 1월로 옥수수과 콩 5,000톤을 지원함.
- 5개의 민간단체는 10만 톤 중 이미 5만 톤을 북한에서 분배하였으며 2만 톤은 모니터링 문제 등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식량지원 거부의를 표시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 로켓 발사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제재카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선수를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의 관측임.
- 다른 가능성은 미국이 표면적으로 정치 및 안보 상황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연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임. 미국은 지난 2001년 35만 톤, 2002년 20만 7천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나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2003년에는 지원량을 4만 200톤으로 대폭 줄인 바 있음.
- 미국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존 브라우스 북한담당관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다가 9월 이래 세계식량계획이 분배하는 식량 선적을 중단한 것은 북한과의 당초 합의와는 달리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영양실태조사를 북한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브라우스 담당관은 북한이 식량배급을 감독할 한국어 구사 요원의 증원을 거부한 점도 있지만 영양실태조사 거부가 미국 정부에 가장 큰 우려를 안겼다고 말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식량지원 거부 美 실망,” 2009. 3. 18)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대북 식량선적 중단은 영양조사 불허 때문,” 2009. 3. 26)
<http://www.reliefweb.int> (AFP, DPR Korea rejects US food aid: State Department, Mar. 17, 2009)

□ 미국 구호단체와 WFP 식량분배 요원 북한 떠날까?

- 미국의 추가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한 북한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구호단체들에게 3월 말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함.
- 국제구호단체 머시코(Mercy Corps)의 조이 포텔라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머시코를 포함한 5개 구호단체에 대해 3월 말까지 북한을 떠날 것을 통보했다고 밝힘.
- 머시코는 그 동안 월드비전(World Vision), 글로벌리소스 서비스(Global Resource Service),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과 함께 북한에서 식량분배 활동을 펴 왔으며 예정된 활동 기한은 금년 5월까지임.
- 5개 구호단체는 지금까지 71,000톤의 식량을 북한에 들여왔으며 이중 5만 톤은 배급이 완료됨.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철수를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부인하고 북한에 남아 계속 구호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힘.
- WFP 아시아사무소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철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앞으로도 북한에 계속 남아 구호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이 순간에도 2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밝힘.
- 북한에서 식량 배급활동을 펴 온 미국 구호단체들이 북한의 추방 지시에 따라 3월 말 모두 철수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함.
- 소식통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북한에 남아있던 구호요원들이 지난 3월 30~31일 모두 북한을 떠났다고 함.
- 이들 구호단체는 북한에 들어온 식량을 모두 분배하지도 못한 채 북한을 떠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구호단체 북한 떠나라 통보 받아,” 2009. 3. 18)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北 당국 철수요청 안받았다,” 2009. 3. 19)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美 구호단체, 지난달 말 북한 철수,” 2009. 4. 3)

<http://www.reliefweb.int> (AlertNet, Pyongyang tells U.S. aid groups to close N. Korea food Programme, Mar. 20, 2009)

<http://www.reliefweb.int> (AFP, US NGOs say they've been told to leave NKorea, Mar.

<http://www.reliefweb.int> (Mercy Corps, SP, World Vision, Statement of NGO partners 17, 2009)

on cession of food aid progra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o leave NKorea, Mar. 19, 2009)

□ 북한 올해 식량 부족량 117만 톤

- 정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1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식량 수요량을 548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생산량은 431만 톤이어서 117만 톤의 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매년 북한에 들어가는 수입량 및 지원량과 금년 양곡연도 중 북한에 들어간 미국의 식량 지원량을 감안하면 부족량은 83만 톤 정도로 예상됨.

- 우리 정부의 추정치와는 달리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더 높게 추정하고 있음.
- 두 기구는 작년 12월 2008/2009 양곡연도 동안의 식량 부족량이 183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음.
- 예상되는 수입량과 지원량을 감안하면 실제 부족량은 이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이들 기구는 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것보다는 식량 부족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정부 北 올해 식량 117만t 부족,” 2009. 3. 18)

□ 못자리용 비닐 대북 지원 무산

- 올해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못자리용 비닐의 지원이 사실상 무산됨.
- 통일부와 민간단체간 정책협의체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민관협)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못자리용 비닐의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정부는 ‘결정 유보’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짐.
- 50여개의 대북지원단체 모임인 북민협은 지난 2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민화협과 접촉하여 못자리용 비닐 지원을 협의한 바 있으며 대북 비닐지원을 적극 추진해 왔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못자리용 비닐 대북 지원 사실상 무산,” 2009. 3. 18)

□ 한국YMCA, 북한에 콩기름 지원

- 한국YMCA는 3월 27일 인천항 제1부두에서 북한에 보낼 콩기름 400칸(개당 18리터) 선적식을 가짐.
- 이 콩기름은 인천~남포 정기화물선인 트레이드포춘호(4,500톤)를 통해 2월 28일 정오께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앞으로 보내질 예정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한국YMCA, 北行 콩기름 400칸 인천서 선적,” 2009. 3. 27)

□ 베트남, 북한 식량생산 돕기로

- 베트남은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힘.
- 르 등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베트남은 북한의 광업과 식량 생산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말함.
- 이에 앞서 베트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리명산 무역성 부상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베트남, 北 식량생산 돕겠다,” 2009. 4. 9)

□ 민간단체 방북 재개 계획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평양에 육고기 가공공장 건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방북하는 등 대북 민간지원단체들의 방북이 이번 주 재개됨.
-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은 지난 4월 23일 개성에 연탄 5만장을 공급한 데 이어 28일 북측 고성지역에 연탄 5만장을 전달할 계획임.
- 평화의 숲도 실무자 2명이 고성 지역을 방문하고 5월 6일에는 20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평화의 숲 10주년을 기념하여 3ha 정도에 잣, 밤, 사과나무를 심을 계획임.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4월 29일 온실사업 기술진의 방북을 계획하고 있으며 5월 7일에는 평양 낙랑구역 정성의약종합센터 등 의료보건 사업을 위해 방북할 계획임.
-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실무진 7명이 4월 25일 방북할 계획이었다가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지 않아 무산되었으나 지난 4월 20일 딸기 모주 5만주를 평양 천동농장에 보냄.
 - 이 딸기 모주는 겨울 수확용 딸기이며 오는 9월께 북한에서 조직배양료로 따로 키운 10만주 정도를 되돌려 받을 계획임.
 - 협력회는 딸기 모주와 함께 배나무 묘목 2천주도 함께 보냄.
- 겨레의 숲도 5월 3일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방북하고 5월 중하순

께 다시 방북할 예정임.

- 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한 전면 허용 문제에 대해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북 지원민간단체는 통일부가 조속히 승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 평화의 숲은 금강산 지역에서 5년째 운영중인 양묘장과 3년째 운영중인 밤나무 단지에 매년 보냈던 수준인 5,600포의 비료 반출 승인을 통일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민간단체 줄줄이 방북 재개 계획,” 2009. 4. 27)

□ 민간단체 방북 선별 허용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발이 묶였던 대북지원민간단체들이 이번 주부터 일제히 방북을 재개할 방침이었으나 통일부에서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방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제동이 걸림.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당초 오는 4월 29일 북한 평양에 육고기 가공공장을 세우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부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방북할 예정이었으나 부산시가 통일부로부터 시기가 좋지 않으니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받음에 따라 방북이 무기 연기됨.
- 통일부 관계자는 국민의 신변안전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방북과 물자반출에 대한 자체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인도주의 사업의 특성상 긴급한 것은 선별적으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방북 허용 범위가 크지 않음을 시사함.
- 이에 따라 평양 등에서 임가공 사업을 하거나 농수산물 교역을 하는 업체들은 지난 4월 5일부터 계속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한 발을 구르고 있음.
-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종래 ‘신변안전’ 문구가 들어 있는 초청장을 ‘편의보장’으로 바꿔 보내면서 ‘편의보장’에 신변안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민간단체 방북 선별 허용,” 2009. 4. 27)

북중 교역 동향

1.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07/08~2008/09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 ~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08.11	0	0	0	72	0	5,748	5,820
12	0	0	0	252	0	252	504
2009.01	0	0	905	0	368	0	1,273
2	0	609	1,432	0	272	0	2,313
3	122	354	2,297	0	739	1,551	5,063
4							
5							
6							
7							
8							
9							
10							
누 계	122	963	4,634	324	1,379	7,551	14,973
2007.11	0	2,880	1,570	164	3,527	840	8,981
12	0	1,758	7,217	164	5,350	72	14,561
2008. 1	0	547	3,707	0	1,770	674	6,698
2	0	6,875	2,976	2	0	1,331	11,184
3	160	4,300	38	0	0	7,166	11,664
4	0	0	0	0	0	97	97
5	0	0	0	0	0	166	166
6	0	11,504	0	0	0	0	11,504
7	0	4,410	0	0	0	0	4,410
8	0	0	0	30	0	38	68
9	0	0	0	73	0	1,037	1,110
10	0	0	0	0	0	438	438
누 계	160	32,274	15,508	433	10,647	11,859	70,881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07/08~2008/09

단위 : 수입량(천 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 ~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08.11	0	0	0	179	0	7,731	7,910
12	0	0	0	600	0	315	915
2009.01	0	0	2,621	0	1,248	0	3,869
2	0	2,670	4,022	0	928	0	7,620
3	350	1,492	6,191	0	2,352	3,277	13,662
4							
5							
6							
7							
8							
9							
10							
누 계	350	4,162	12,834	779	4,528	11,323	33,976
2007.11	0	14,588	5,053	360	13,527	1,413	34,941
12	0	9,065	21,834	447	20,349	74	51,769
2008. 1	0	2,548	11,116	0	6,642	1,093	21,399
2	0	27,588	8,864	21	0	2,782	39,255
3	390	16,132	99	0	0	14,963	31,584
4	0	0	0	0	0	123	123
5	0	0	0	0	0	210	210
6	0	37,111	0	0	0	0	37,111
7	0	14,227	0	0	0	0	14,227
8	0	0	0	67	0	45	112
9	0	0	0	150	0	1,140	1,290
10	0	0	0	0	0	600	600
누 계	390	121,259	46,966	1,045	40,518	22,443	232,621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북한은 2008 양곡연도(2007.11~2008.10) 동안 중국으로부터 232,621톤의 곡물류를 수입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수입이 11.3% 감소하였음.
 - 그러나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은 7,088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음.
 - 2008 양곡연도 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2007년 수해로 인하여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곡물 수출 제한과 북한의 외환 부족 때문임.
- 북한이 2008 양곡연도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류 가운데 옥수수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07 양곡연도의 경우 옥수수 수입량은 전체 곡물류 수입의 13.7%에 불과하였음.
 - 이처럼 옥수수 수입 비중이 증가한 것은 외환이 부족한 가운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옥수수 수입을 대폭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2007 양곡연도 동안 중국에서 132,000톤가량의 밀가루를 수입하였으나 2008 양곡연도에는 밀가루 수입량이 40,000톤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이는 중국이 2008년에 밀가루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임.
- 2009 양곡연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08.11~2009.3 5개월 동안 북한은 15,000톤가량의 곡물류를 수입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의 53,000톤에 비해 크게 감소함.
 - 2008 양곡연도에는 초기부터 옥수수, 쌀, 밀가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9 양곡연도에는 이들 품목의 수입이 급감한 대신 두류 수입이 증가함.
 - 그러나 쌀의 경우 2009년 2월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북한 내 시장의 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2.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07/08~2008/09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08.11	0	0	0	0	0
12	1,057	0	0	1	1,058
2009.01	6,347	0	0	2	6,349
2	1,570	0	0	31	1,601
3	15	0	0	5	20
4					
5					
6					
7					
8					
9					
10					
누 계	8,989	0	0	39	9,028
2007.11	0	0	0	0	0
12	0	0	0	0	0
2008. 1	160	0	0	1	161
2	881	0	0	0	881
3	1,276	0	10	38	1,324
4	1,027	0	1	45	1,073
5	1,919	0	0	1	1,920
6	2,176	0	0	30	2,206
7	4,091	0	0	2	4,093
8	4	0	0	0	4
9	0	0	0	0	0
10	0	0	0	0	0
누 계	11,534	0	11	117	11,662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07/08~2008/09

단위 : 수입량(천 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08.11	0	0	0	0	0
12	3,698	0	0	5	3,703
2009.01	21,900	0	0	5	21,905
2	5,486	0	0	40	5,526
3	59	0	0	8	67
4					
5					
6					
7					
8					
9					
10					
누 계	31,143	0	0	58	31,201
2007.11	0	0	0	0	0
12	0	0	0	0	0
2008. 1	632	0	0	3	635
2	2,525	0	0	0	2,525
3	3,800	0	22	117	3,939
4	2,765	0	4	157	2,926
5	5,645	0	0	1	5,646
6	5,738	0	0	40	5,778
7	6,365	0	0	7	6,372
8	10	0	0	0	10
9	0	0	0	0	0
10	0	0	0	0	0
누 계	27,480	0	26	325	27,831

- 북한은 2008 양곡연도 동안 중국에서 총 27,831톤의 화학비료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1,166만 달러임.
 - 2007 양곡연도 동안의 수입량 69,875톤(수입액 1,101만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북한이 2007년과 2008 양곡연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수입액은 비슷하나 수입량이 4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비료가격의 상승에 기인함.
 - 2008년의 수입 단가는 톤당 419달러로 2007년의 157달러의 2.7배에 달함.
 - 2008년 전체 수입 비료의 98.7%는 요소 비료로 2007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2009 양곡연도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2008.11~2009.3 동안 북한은 총 9,028톤의 비료를 수입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의 3.8배에 달함.
 -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료의 대부분은 질소(N) 비료임.
 - 이처럼 북한이 비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한국의 비료 지원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임.
 - 한국은 1999년부터 매년 30~35만 톤의 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08년에는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2009년에도 비료 지원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강수량

- 작년 11~12월에 이어 올해 1~3월에도 강수량이 전국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1, 2, 3월 모두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에서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매우 적어 봄 가뭄이 우려됨.
 - 특히 3월에는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에서 평년 2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것과 달리 평균 0.48mm의 강수량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강수량을 보이지 않는다면 봄철 파종과 모내기, 겨울작물의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누적강수량, 1~3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46.5	53.3	69.5	38.0	36.1	63.5	30.4
김책	수봉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49.9	74.4	34.9	65.5	83.6	91.3	43.5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42.0	67.2	73.8	50.1	43.3	28.0	99.4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39.7	78.8	46.2	66.1	102.8	100.7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mm(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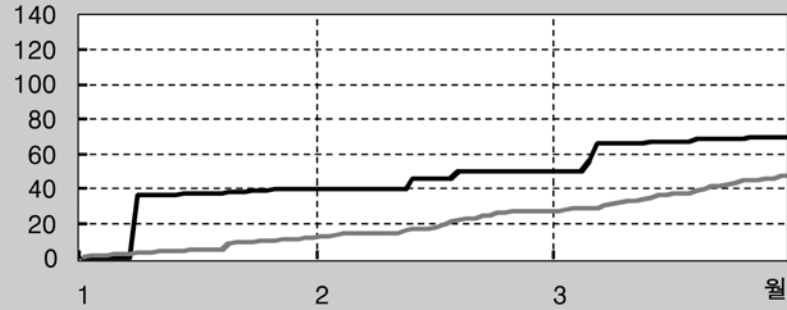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1월	강수량	0.3 (12.7)	0.2 (10.9)	0.2 (11.7)	1.3 (12.0)	0.2 (13.9)	0.2 (39.3)
2월	강수량	1.7 (12.3)	0.7 (11.6)	0.6 (13.8)	0.4 (15.7)	1.0 (15.0)	1.0 (36.0)
3월	강수량	0.4 (36.1)	0.6 (28.9)	1.3 (27.9)	0.6 (20.7)	0.3 (25.0)	0.3 (43.1)

* ()는 평년 강수량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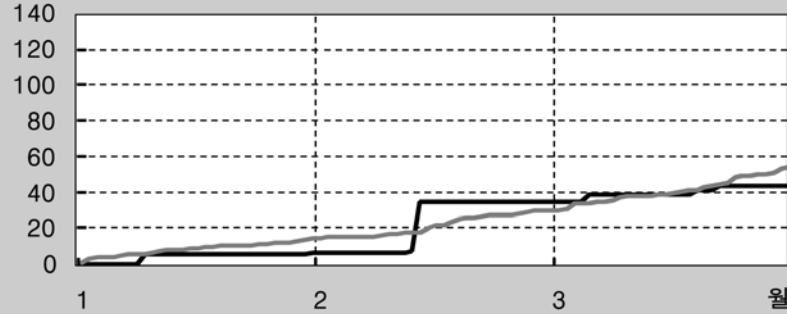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봉,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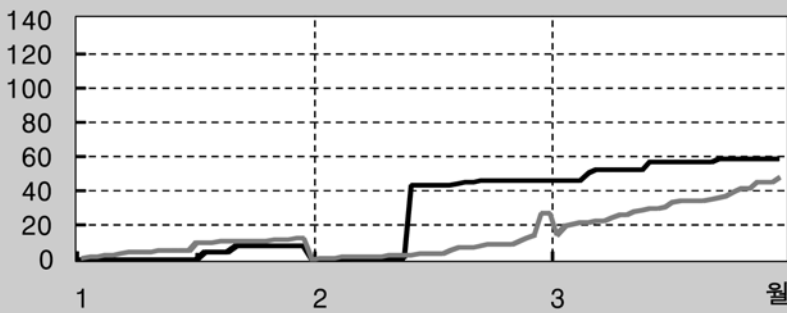
청진 강수량(mm)



함흥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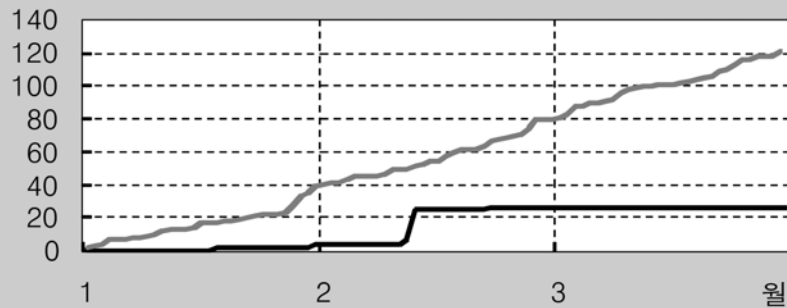


안주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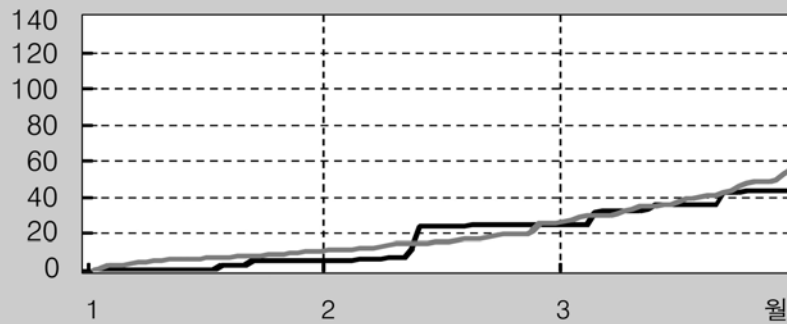


— 09년 강수량 — 평년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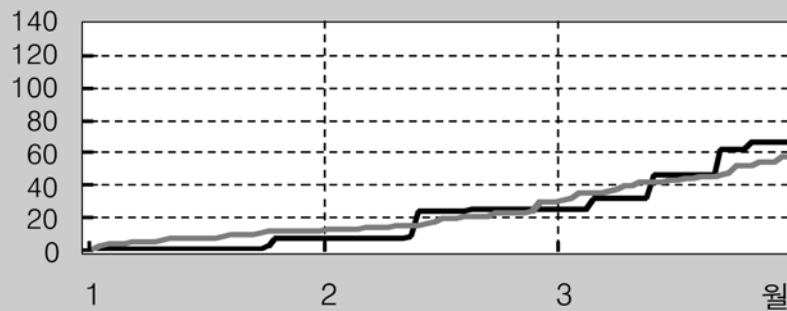
원산 강수량(mm)



평양 강수량(mm)



해주 강수량(mm)



— 09년 강수량 — 평년 강수량

E02-2009-04 KREI 북한농업동향 제11권 제1호

찍 은 날	2009. 4.	펴낸날	2009. 4.
발 행 인	오 세 익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